

2023 국학자료
조사·수집
공동학술대회

은봉 안방준

사상과 은봉종가 자료의 학술적 가치

은봉 안방준

사상과 은봉종가 자료의 학술적 가치

목 차

발표 1

- 은봉 안방준의 도학과 시의 세계** 1
이향배(충남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발표 2

- 은봉 안방준의 의병활동과 當代史 정리** 19
이욱(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발표 3

- 은봉 종가 소장 교령류의 현황과 내용** 35
유지영(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발표 4

- 은봉 종가 소장 고문서의 구성과 가치** 59
- 간찰을 중심으로
장유승(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
- 종합토론 73

2023 국학자료
조사·수집 공동학술대회

은봉 안방준의 도학과 시의 세계

이향배(충남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I. 서론
 - II. 절의 중심의 실천도학 추구
 - III. 시의 세계
 - IV. 결론
-

隱峯 安邦俊의 道學과 詩의 世界

이향배 | 충남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I. 서론

조선 중기 영남학과 쌍벽을 이루는 기호학은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학풍을 이은 학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율·우의 학통을 계승하여 기호학파로 분류되는 인물들 중 특징을 나누어 본다면 학문을 강독하여 후진 양성에 힘쓴 사람은 사계 김장생이다. 경세제민의 학풍을 이어받은 사람은 중봉 조헌, 목재 이귀, 망암 변이중이 대표적이다. 이들과 달리 평생 동안 절의에 관계된 인물의 사상과 행적을 정리하여 많은 저술을 남긴 학자가 바로 은봉 안방준이다.

우암 송시열은 “안방준 이분은 氣節이 있어서 남쪽 지방 선비들이 이 어른을 힘입어 갈 길을 잃지 않은 자가 매우 많다.”¹⁾고 하였고 포저 조익은 안방준의 제문에서 중봉 조헌의 언론과 의열, 호남 의병들과 진주성에서 순절한 사람들의 행적을 간행하여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다²⁾고 하였다. 이는 안방준이 호남지역에서 많은 학자들을 양성하여 학풍을 진작시키고 절의를 실천한 인물들의 행적을 저술하여 후세에 전한 공적을 높이 평가한 말이다. 사실 안방준은 절의를 지킨 인물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시문을 발간하여 세상에 알리는데 평생을 바친 학자이다.

이처럼 안방준이 절의를 실천한 인물들의 행적을 정리하고 저술한 것은 그의 도학사상과 맞물려 있다. 안방준의 도학 사상은 절의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성리학자의 그것과 다르다. 이는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 문하의 실학적 성격의 실천도학과도 일맥상통한다. 중봉 조헌과 목재 이귀는 경륜에 밝은 인물이며 과격할 정도로 경륜사상을 세상에 펼치려고 노력한 인물들이다. 특히 조헌은 시무를 잘 알고 개혁을 주창했으며 임진왜란을 당해 의병을 일으켜 충성을 바친 인물이다. 안방준은 스스로 절의를 지키려고 노력함은 물론 나라를 위해 절의를 지킨 인물들의 행적을 밝혀서 세상에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무를 삼았다.

안방준의 저술 『은봉전서』는 절의에 관계된 산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1) 송시열, 『宋子大全』 부록 제14권, 語錄. 李喜朝의 기록. 問牛山何如人. 先生曰. 此人有氣節. 南方士子賴此丈不失趨向者甚多. 於南中極有功矣.
2) 조익, 『浦渚集』, 30권, <祭安參議 邦俊 文>. 重峯先生, 言論義烈, 昭如日星. 湖南死義, 晉州守城, 亦皆訪問, 編錄刊行. 一代義士, 並得留名.

일반 문인들의 문집과는 성격이나 내용 면에서 확연하게 다른 면모로 『은봉전서』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은봉전서』 총 38권 중에 시는 1권에 38편이 실려있고 나머지는 모두 산문이다. 특히 5권부터 38권까지는 절의에 관련된 역사 산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문집의 성격으로 볼 때 안방준은 역사 산문에 특화된 작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안방준은 문장가로 자처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의에 관련된 인물들의 사료를 조사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하는데 있어서 율·우 제자 중에 안방준보다 뛰어난 학자는 없다.

안방준의 저술은 도학가 문학의 실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고는 한시를 중심으로 안방준의 문학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안방준은 시로 이름난 문인은 아니다. 그러나 『은봉전서』에 수록된 시는 매우 적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세계가 잘 드러나 있다. 그의 한시 작품을 분석한다면 안방준이 도학자로서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 밝혀낼 수 있다.

현재 안방준에 대한 연구는 사학³⁾과 철학⁴⁾ 방면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문학 연구⁵⁾는 송재연⁶⁾과 이정화⁷⁾가 한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밖에 서지학⁸⁾과 미술방면⁹⁾에서 접근한 연구도 있다. 이런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본고는 먼저 안방준의 도학사상을 살펴보고 시 세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절의 중심의 실천도학 추구

안방준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학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 知行的 시각에서 볼 때 일반적인 학문추구는 앎에 대한 지적 추구 활동이다. 전통적으로 배움은 앎에 대한 문제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실천에 있다. 선진유학에서는

-
- 3) 이해준, 「우산 안방준의 생애와 사상」, 『금호문화』, 1988.
정구복, 「임진왜란 사료에 대한 사학사적 검토 -『선조실록』과 安邦俊의 역사기술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35, 2009.
 - 4) 안동교, 「은봉 안방준의 진유적 삶의 여정」, 『향토문화』, 1998.
황의동, 「은봉 안방준의 학문연원과 학풍」, 『한국사상과 문화』, 2003.
최영성, 「安邦俊의 義理思想과 精神史的 意義 - ‘道學節義 不是兩岐’를 중심으로 -」, 『우계학보』 22호, 2003.
박미향, 「은봉 안방준의 절의사상」, 『역사학연구』38, 2010.
 - 5) 신해진, 「창의록 문헌의 변개 양상-《우산선생병자창의록》과 《은봉선생창의록》 비교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64, 2013.
 - 6) 「안방준의 한시 <오륜가>에 구현된 오륜 형상과 그 의미」, 『국문학연구』 제39, 2019.
 - 7) 「隱峯 安邦俊의 贈詩 研究」, 『대동한문학』62, 대동한문학회, 2020.
 - 8) 조정근, 「古文書를 통해 본 조선 후기 文集 刊行 과정상의 紛爭 - 安邦俊의 저술 『隱峯全書』를 중심으로 -」, 『서지학연구』 62, 2015.
이상현, 「朝鮮時代 湖南 義兵家門의 서적 간행」,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0.
 - 9) 유미나, 「임진왜란 의병장 조헌(趙憲)(1544~1592)의 행적을 그린 『항의신편(抗議新編)』 판화 고찰」,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0.

知보다는 行을 중시하는 면모가 있지만 주자학 중심의 송대 유학에서는 지행 병행의 문제에서 知를 더 강조된 측면이 있다. 성리학이 발달한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학자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학문이 지적 탐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서 현실에 부닥칠 때 실천에서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도학자는 도를 아는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진정으로 사회적 실현을 추구한 학자를 말한다. 안방준은 도의 학문적 탐구보다 사회적 실천의지의 측면을 매우 중시하였다. 이는 안방준 도학 사상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안방준의 도학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眞儒와 절의이다. 안방준이 말하는 진유는 俗儒가 아닌 名賢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그는 조선조 유현들을 다시 명현과 진유를 구분하여 진유를 숭상하였다. 이는 『牛山問答』에 잘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우산답문』은 문답식 대화체로 구성된 작품으로 안방준의 도학 사상이 잘 드러난 글이다. 이 글을 보면 안방준은 眞儒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안방준은 조선조 수백 년 동안 名賢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었지만 眞儒는 겨우 몇 사람 뿐이라고 하였다. 명현과 진유를 구분하는 기준은 학문과 절의 두 가지였다. 학문이 풍족해도 절의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학문이 부족해도 절의가 풍족한 사람이 있다면서 그는 이 둘 중에 절의를 중시하였다. 그는 학문보다 절의를 기준으로 진유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¹⁰⁾

안방준은 지행의 관점에서 학문과 절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학문이 풍족해도 절의가 부족하면 골격 없는 사람과 같아서 피부만 있고 걸어 다닐 수가 없다고 비유하였다. 이로 보면 학문은 지식탐구 활동이라 한다면 절의는 학문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안방준이 학문보다 절의를 더욱 중시한 것은 선비에 있어서 도의 사회적 실현 의지가 더욱 중요함을 보여준다. 도의 사회적 실현 의지가 바로 그가 말하는 절의였다.

학문과 절의는 본래 별개가 아니라 학문 활동에 절의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학풍은 학문과 절의가 분리되었다. 안방준의 ‘옛사람은 절의가 학문하는 속에 들어있지만 지금 사람들은 절의가 학문 밖에 있다’는 지적이 이를 말해준다. 당시 유자들의 학문 활동은 절의가 배제되어 있었다. 안방준은 학문과 절의를 분리하고 절의를 기준으로 선비들을 분류하여 眞儒를 변별하였다. 진유는 궁극적으로 학문과 절의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설정된 명칭이다.

10) 안방준, 『은봉전서』, 우산문답. 客有來訪主人者, 謂主人曰. 聞主人與澤堂書曰. 我朝數百年間. 名賢相繼而出. 眞儒則纔數人而已云. 然耶. 主人曰. 然. 客曰. 名賢眞儒. 其有異乎. 主人曰. 異. 客曰. 然則何如斯可謂之名賢. 何如斯可謂之眞儒乎. 主人曰. 有學問有餘而節義不足者. 有學問不足而節義有餘者. 與其學問有餘而節義不足. 不若學問不足而節義有餘者. 名賢眞儒之異. 不在於學問. 而在於節義而已.

안방준은 포은 정몽주와 양촌 권근의 학문과 절의를 비교해 설명하였다. 권근의 학문이 정몽주보다 우수하지만 절의는 볼 것도 없다는 그의 말은 절의를 중시한 평가이다. 학문에 뛰어난 사람은 명현이 되지만 학문에 절의를 갖춘 사람은 진유인 것이다.¹¹⁾

안방준은 절의를 배제하고 학문을 중시하는 권근의 학풍이 조선조 학풍에 영향을 주어서 폐단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그는 학문과 절의가 둘로 분리되어 학문을 중시하고 절의에 힘쓰지 않아서 조선조에 진유가 적다고 설명했다. 조선에는 학문을 탐구하여 깊은 경지에 도달한 학자가 많았지만, 그 도를 사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례가 적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안방준은 평소 진유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도를 실행하는가의 여부를 보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학문을 통해 도를 실행하는 사람은 바로 진유이고 학문이 있지만 도를 실행하지 않은 사람은 명유가 되었다. 진유의 변별은 학문이 관건이 아니라 利害나 事勢를 따지지 않고 도의 실행하려는 의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학풍이 도의 사회적 실천을 등한시하고 학문적 탐구에 매진하는 것에 대하여 진유를 내세워 도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의 실행에 대한 판단은 요순처럼 지위를 얻어 세상에 도를 편 경우를 포함하여 공자 맹주 정자 주자처럼 지위를 얻지 못해 도를 펴지 못했지만 부지런하게 도를 펴려고 자임한 경우도 포함되었다.¹²⁾

도의 실행 여부가 명유와 진유를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이지만 도를 실행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언행과 출처에서 확인하였다. 안방준은 진유를 사례로 들어 이를 설명하였다. 그가 제시한 진유에 해당하는 인물은 정몽주 이후에 정암 조광조, 율곡 이이, 중봉 조헌 등이었다. 이들은 젊어서부터 경국제세의 큰 뜻을 품은 다음 조정에 나가 時勢나 利害를 헤아리지도 않고 오직 삼대의 정치를 이루는 것으로 자신의 책무를 삼았다. 이 세 사람의 언행과 출처로 볼 때 안방준은 그들이 비록 도를 사회적으로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도를 실행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11) 上同。客曰。不然。學問不足而節義有餘者。或有之矣。未有學問有餘而節義不足者。若學問有餘而節義不足。則如無骨之人。肌肉徒肥。而行止步趨。不得自任。眞箇是鄉愿之類也。謂之學問。不可也。謂之節義。尤不可也。有餘不足。何暇論乎。主人曰。然。古之人。節義在學問中。今之人。節義在學問外。愚請粗陳厥由。試詳聽之。吾東方學問。自鄭圃隱。權陽村始。論其學問。則陽村過圃隱遠矣。論其節義。則陽村無足可觀。至于我朝。其弊猶存。學問節義。分而爲二。名賢雖多。而眞儒則少。舉世之人。莫之能辨。此愚之所嘗慨歎。而目之以名賢眞儒者也

12) 上同。客曰。主人之言。極是極是。但節義見於亂世。若太平無事之時。則何以知之乎。主人曰。是不難。只觀其行道與不行道而已矣。客曰。然則行道者謂之眞儒。不行道者謂之名賢乎。主人曰。然。客曰。不然。三代以上。唯伊尹。周公行其道。三代以下。雖以孔孟之聖。程朱之賢。俱不得行道。然則孔孟程朱。皆不得爲眞儒乎。主人曰。不然。周季宋末。非行道之時。孔孟猶棲棲遑遑。轍環天下者。欲行其道也。程朱不在其位。惓惓以行道自任。孔孟程朱。雖不得行道。是亦行道也。客曰。然則主人所謂名賢眞儒。可得聞歟。主人曰。考其言行出處則可見。何必辨某也名賢。某也眞儒。然後知之乎。

평가했다.¹³⁾

그렇다면 안방준이 말하는 절의란 단순한 국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도를 사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순수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절의는 사회적 실현의 성공 여부는 상관 없이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투철했는가가 관건이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언행과 출처를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안방준이 절의를 중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잘 알 수 있다.

국가에 있어서 절의는 사람의 원기와 같습니다. 사람이 원기가 있다면 비록 병이 심하더라도 죽음에는 이르지 않고 국가에 절의가 있다면 비록 큰 난리가 있더라도 망국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존망은 오직 절의의 부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¹⁴⁾

안방준은 국가에 있어서 절의가 사람의 원기와 같다고 보았다. 절의는 국가의 존망에 달려있는 문제였다. 절의를 어떻게 부식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운명도 좌우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사례로 안방준은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때의 상황을 들고 있다.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줄지어 일어난 것은 선조가 잘 절의를 부식한 효과이며 정묘호란 때 사계 김장생, 여헌 장현광, 우복 정경세 등과 같은 당대를 대표할 만한 선비들이 거의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은 것은 광해군 때 절의를 부식하지 못한 징험이라고 하였다.¹⁵⁾

절의 부식은 국가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에서 표창을 하여 장려하면 되지만 절의를 실천한 사람들의 행적을 발굴하여 후세에 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안방준이 국가에 대한 절의를 실현한 사적과 인물들을 정리하는데 평생을 바친 것은 바로 그의 절의를 중시하는 도학 정신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안방준은 절의를 부식하기 위해 절의와 관련된 인물들의 행적을 저술하였다. 『항의신편』을 비롯하여 『己丑記事』, 『壬辰記事』, 『釜山記事』, 『露梁記事』, 『晉州敘事』, 『湖南義錄』, 『壬丁忠節事蹟』, 『三冤記事』, 『白沙論壬辰諸將士辨』, 『己卯遺蹟』, 『混定編錄』 등의 저술은 대부분 충절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의 행적이다. 이러한 저술은 단순히 그들의 행적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강상을 부식하기

13) 上同。主人曰。然。姑舍名賢。請言真儒。圃隱後惟靜庵，栗谷，重峯。自少有經濟大志。及登第立朝。不量時勢。不計利害。惟以致治三代爲己任。則此三賢雖不得行道。其與行道者無異矣。

14) 안방준, 『은봉전서』 3권, <與延平李相公 貴 別紙 壬申十一月日>. 節義之於國家。猶元氣之於人也。人有元氣。則雖甚病不至於死。國有節義。則雖大亂不至於亡。故國之存亡。惟在於節義之扶植如何耳。

15) 상동. 壬辰之亂。人皆感發。忠臣烈士。相繼而起。得使神器危而不墜。此無他。我先王能扶植節義之明效也。戊申以後。賊臣當國。政刑紊亂。節義之人。視若仇讎。褒崇一事。不復舉行。是以忠烈之裔。反不如鄉里之常人。流離他境。丐乞者多。舉世之人。皆曰欲使子孫貧賤。嘗作忠臣。爲父兄者。以此戒其子弟。爲子弟者。以此勉其父兄。其流之弊。至于丁卯胡變而驗矣。當時碩德重望。莫如金沙溪，張旅軒，鄭愚伏諸公。而受命號召之初。諸道列邑。殆無一人應募者。不得已權宜設策。儒生之壯者從軍。弱者代奴。又括民丁。勒使爲兵。而亦多有不肯赴難者。

위한 방편이었다. 또한 이는 안방준이 도학을 실천하는 방식이었다.

Ⅲ. 시의 세계

1. 실천도학의 지향

안방준은 어려서부터 지향했던 뜻이 매우 높았다. 세상 공명에 대한 뜻을 저버리고 백이숙제의 절의를 지키며 한평생의 살아가기를 소망하였다. 이는 그가 어렸을 때 배운 스승의 영향도 있지만 그러한 자품을 본래 타고났다고 할 수 있다. 11살 때 안방준은 퇴계 이황의 제자이면서 학문과 행실로 명성이 높았던 박광정에게 수학하였다. 14세 때에는 난계 朴宗挺의 문하에 나가 수학하였다. 박종정은 학행과 문장으로 당시 사람들의 추대를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제자들과 강학하면서 어느 날 <言志>를 시제로 냈다. 이때 안방준은 功名을 추구하기보다는 산속에 은둔하여 詩酒로 강호자연을 즐기며 자신의 고상한 지조를 지키며 살고 싶다는 뜻을 말하였다. 다음 인용문은 그 시의 후반부이다.

<전략>

君不見伯夷叔齊子登彼西山採其薇。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백이와 숙제가
서산에 올라 고사리를 캐던 일을
又不見宋時處士陳搏子隱居華山晝掩扉。 또 보지 못했는가. 송나라 처사
진단이 화산에 숨어 살며 낮에도
사립문을 닫았음을

平生抱此志 한평생 이 뜻을 품었으니
何日遂所欲 언제나 이 소망을 이룰까
遂與同志友 마침내 뜻을 같이하는 벗들과
今夕相論確 오늘 저녁 서로 이를 강론하네
脫巾枕寒石 망건 벗고 차가운 돌을 베개 삼으며
漱齒清流湍 맑은 여울물로 치아를 닦아보세
歌於斯詠於斯 여기에서 노래하고 여기에서 읊조리며
逍遙於茲山之間 이 산 사이를 마음껏 노닐고 싶어라¹⁶⁾

이 시는 장단구로 쓴 고시체이다. 여기에서 거론된 백이숙제는 주나라 무왕을 피해 서산에 숨어서 은나라에 대한 자신의 절의를 지키다 굶어 죽은 인물이며 陳搏은 송나라 때 공명을 탐하지 않고 화산에서 은거한 학자이다. 소년 안방준은 이 두 인물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전범으로 삼고 있다. 이는 세상에 나가 도를

16) 安邦俊, 『隱峯全書』, 권1, <蘭溪丈席言志 丙戌>.

펼치는 것보다는 강호 자연 속에서 자신의 지조를 온전히 지키며 벗들과 강론하며 살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시에 나타난 의경은 이미 속세를 초월한 노숙한 학자의 풍격이 드러나 있다. 안방준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상적 깊이가 이미 속된 선비가 범접할 수 없는 심오한 경지에 도달해 있다. 또한 그는 원숙한 수사와 표현으로 자신의 세계관과 원대한 포부를 정확하게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의 시적 재능이 탁월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박종정은 안방준에게 기대를 걸고 “이 뜻이 가상하여 속된 사람과는 말하기 어려우니 자상의 빼어난 흥취를 내가 그대와 함께 하리라”¹⁷⁾라고 감탄하였다.

강호 자연을 즐기려는 처세적인 시정은 그의 시 전반에 일관되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세적 풍격은 세속과 단절하려는 도가적 의경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자신의 본성을 도야하여 인격을 완성하고 도리를 실천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러한 의지는 그가 과거를 포기하고 위기지학을 추구하는 뜻을 더욱 확고하게 했으며, 동시에 국가가 외적의 침입을 받아 위기에 처했을 때 의병을 일으켜 이를 구제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안방준은 임진왜란 때 의병에 가담했으며, 정묘호란 때에도 의병을 거느리고 전주의 分朝까지 갔다. 병자호란 때도 의병을 일으켜 여산까지 갔다가 인조가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돌아왔다. 이와 같이 국난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은 바로 그의 투철한 절의 정신의 발로이다.

병자호란 때 안방준이 65세의 나이로 의병을 일으킨 것은 국가에 대한 신하로서 지켜야 할 절의의 실천이었다. 수 백명의 동지와 함께 의병을 일으켰을 때 그는 임금이 모욕을 당하면 신하로서 죽어야 할 때라고 주창한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다음 시는 안방준이 의병을 도모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김상범에게 보낸 작품이다. 당시 김상범은 장흥에 거주하는 선비로 자신은 병들어 의병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힘이 썩은 총 30명과 군량 열섬을 창의소로 보내주었다.

贈金尙範 丙子倡義時

誠孝貞忠是兩難。 참된 효도와 곧은 충성은 겸하기 어려운 것
似公於世未曾看。 그대 같은 사람 세상에서 아직 보지 못했네
扶持萬古綱常士。 만고의 강상을 붙잡아 세울 선비가
虛老林泉孰不歎。 헛되이 자연에서 늙으니 모두가 탄식한다¹⁸⁾

17) 상동. 蘭溪先生批曰。讀盤谷序。每有感李愿之意。奇哉此童。志氣若此。他日幸不負斯文。又曰。此意可嘉。難與俗人言。紫霜逸興。吾與爾共之。

18) 安邦俊, 『隱峯全書』, 권1, <贈金尙範 丙子倡義時>.

기승은 안방준이 김상범의 효심과 충성심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전결은 의병에 참여하여 만고의 강상을 세워야 할 선비가 병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내용이다. 이로 보면 안방준은 의병 활동을 만고의 강상을 바로잡는 행동으로 인식하였다. 의병 활동이 바로 적에 대한 복수 내지는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활동이 아닌 인륜을 바로 세우는 행동임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만고의 강상을 바로 세울 틈도 없이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하였다.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충격과 수치감을 주었다. 그래서 당시 뜻있는 선비들은 조정에 벼슬하려는 뜻을 버리고 강호에 은둔하였다. 그만큼 병자호란은 선비들에게 매우 큰 수치감을 주었다. 실의에 찬 안방준은 <感吟>에서 다음과 같이 탄식하였다.

紛紛拜揖不知羞。 어지러이 절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니
被髮吾東三百州。 우리 동방 삼백 고을은 오랑캐 되었네
獨有清風吹石室。 홀로 맑은 바람이 석실로 불어올 뿐
更無餘地讀春秋。 다시는 춘추』를 읽을 곳이 없구나¹⁹⁾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한 이후로 조선은 청나라의 간섭을 받아왔다. 관리들은 청인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으나 안방준은 우리나라가 오랑캐의 세상이 되었다고 부끄러워했다. 조선은 공식적인 문서에 명나라 연호 대신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고 청나라 임금을 황제로 섬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청나라와의 강화를 반대한 사람들의 배척 의식은 더욱 강화되었다. 청나라를 배척하는 중심에는 청음 김상헌이 있었다. 석실은 김상헌의 호이다. 안방준은 김상헌의 굳은 절의를 존송함과 동시에 춘추대의를 강구할 곳이 없다고 탄식한 것이다. 전국이 오랑캐 천하가 된 현실을 개탄하는 말이다.

또한 <贈宋英甫 丙子亂後>²⁰⁾에서 안방준은 “통곡하오. 당시의 일을, 내 장차 어디로 돌아갈거내[痛哭當時事, 吾將何所歸]”라고 탄식하였다. 병자호란 때 송시열의 종형인 송시영이 강화도에서 절사하였다. 안방준은 송시열의 슬픔을 공감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는 치욕스러운 현실 앞에서 강개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다.

병자호란을 겪으면 발로된 이러한 詩情은 안방준의 충심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마다 의병을 일으키고 시폐를 상소문으로 진달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충의 실현이다. 이는 그의 투철한 윤리관에서 비롯되었다. 안방준의 윤리관을 볼 수 있는 작품이 오륜가²¹⁾이다.

19) 安邦俊, 『隱峯全書』, 권1, <感吟>.

20) 安邦俊, 『隱峯全書』, 권1, <贈宋英甫 丙子亂後>.

이 작품은 총 8수로 구성되어 있다. 첫수는 일종의 서문격으로 오륜을 실천하지 못하면 인간이 새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내용이다. 인간이 금수와 다른 점은 바로 인륜이었다. 그 다음에는 부자, 군신, 스승, 부부, 형제, 봉우 등의 순서로 시를 짓고 마지막 시는 성인이 되는 기초가 오륜임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첫수와 마지막 수는 서론과 결론으로 오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머지 시는 오륜 외에 스승을 첨가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오륜가와 차이가 있다. 오륜가 중에 세 번째인 군신을 읊은 시를 보기로 한다.

其三

君父何嘗異。임금과 부모가 어찌 다르리요
當爲盡節臣。마땅히 충절 다하는 신하가 되리라
無論湯發德。탕(湯). 발(發)의 덕을 논하지 말게
弔伐亦非仁。불쌍히 여겨 치는 것도 인은 아니라네

이 시는 신하로서 지켜야 할 의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君臣有義에 관해 다루었지만 주제는 임금이 신하나 백성에 대한 의리보다는 신하로서 임금에게 해야 할 도리인 충에 있다. 이는 신하로서 실천해야 할 군신간의 도리를 부자간 도리의 확장선상에서 강조한 말이다. 다시 말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가 효라면 신하가 임금에게 해야 할 도리가 충이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듯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함을 설명한 말이다. 전구와 결구를 보면 신하로서 하나라를 치고 은나라를 세운 탕과 은나라를 치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에 대해서 인이 아니라고 부정하였다. 조별은 탕과 무왕이 폭군 결주를 제거하여 폭정에 시달리는 백성을 위로한 사실을 말한다. 이 조별이 인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은 신하로서 임금에게 충을 다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이는 앞서 안방준이 절의를 강조한 사실과 맥락이 통한다.

이처럼 안방준이 오륜가를 지은 것은 오륜의 실천이 인격완성의 기본이기 때문이었다. 유가에서 인격완성의 최고 경지에 이른 사람을 성인이라 한다.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오륜의 실천인 것이다.²²⁾ 오륜 중에 좀 더 핵심이 되는 항목이夫子 관계와 君臣 관계이다. 안방준은 오륜가를 통해 윤리의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특히 군신 관계에서 충을 중시하는 것은 도의 사회적 실현을 진정으로 추구해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2. 둔세불민의 시정

21) 安邦俊, 『隱峯全書』, 권1, <五倫歌>.

22) 상동. 此外無他道, 丁寧念在茲. 嘗聞古人語, 作聖是根基.

안방준은 관직에 나가서 활동한 기간은 거의 없었다. 평생 동안 그는 재야에서 저술 활동과 학문 강독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세상에 도를 실행하는 것을 강조한 그가 관계에 진출하여 적극적으로 도를 펴려고 시도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당시에 과거를 통해야만 관계에 진출해야 청요직을 거쳐 도를 펼 수 있는 직책에 오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천거를 통해야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과거를 포기한 안방준도 천거를 받았지만 거절하고 관계에 진출하지 않았다. 이는 자칫 공명을 추구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선비로서 시속의 병폐를 보고만 있지 않았다. 상소문을 통해 시폐의 개혁을 건의하였으며, 인조에게 반정한 본래의 목적을 그대로 실현하기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조에게 시무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 무시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의리에 관련된 저술 문제로 인해 시비문제에 휘말리기도 했다. 고시체로 쓴 <行路難>²³⁾은 안방준의 세상살이에 대한 심사를 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行路難行路難。길 다니기 어렵네. 길 다니기 어렵네
 行路之難難如何。길 다니기 어려우니 어려움을 어찌할까
 登山山有石。산에 오르면 산에는 돌이 있고
 入水水有波。물에 들어가면 물에는 파도가 있네
 何況日又暮。하물며 날도 저물어
 猛虎當我前。맹수 호랑이가 내 앞에 있네
 雲憑憑兮風怒號。구름은 왕성한데 바람은 세차게 부르짖으니
 欲去未去心茫然。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마음이 막막하네
 早知行路正如此。일찍이 길 다니기가 이러한 줄 알았건만
 何爲中路空彷徨。어째서 중도에서 부질없이 방황하는가
 行路難令人傷。길 다니기 어려움이 사람을 슬프게 하네

<행로난>은 악부시의 일종이다. 길 다니기 어렵다는 것은 선비로서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비유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길은 산길도 있고 물길도 있지만 거기에 바위와 파도가 있다. 또한 날도 저물어 가는데 맹수 호랑이가 앞에 있다. 구름도 덮여 있고 바람도 세차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산과 물은 인생 자체의 험난한 길을 비유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인생길 자체가 본래 험난하지만 거기에 바위, 파도, 어둠 속의 맹수 호랑이, 어두운 구름, 세찬 바람이 곁들여 있다. 이는 험난한 인생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서 휘방꾼, 간신배나 불운한 시운 등을 상징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23) 安邦俊, 『隱峯全書』, 권1, <行路難>.

안방준은 당쟁이 치열하고 임병양란을 겪는 어려운 시국 속에서 도학을 실천하는 선비로 살아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조를 잃지 않고 도리를 실천해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살다 보면 남과 시비 문제에 시달리기도 하고 비난도 받으며 온갖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인생이다. 이는 자신의 초심을 상실하게 만들거나 지조를 변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행로난>은 이러한 난국을 헤쳐오면서 상심하며 내면적으로 갈등을 겪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천성적으로 자연을 좋아하던 안방준은 공명에 대한 욕망을 지속적으로 경계하였다. <遣興>²⁴⁾의 두 번째 시에서 “도도하게 모두 다 명리를 쫓아가니, 예로부터 대장부가 몇 명이나 될까[滔滔盡是趨名利, 從古男兒幾箇人]”라고 하였고 <偶吟>²⁵⁾에서는 “공명이 좋다 말하지 마라, 이익을 쫓아 종일 바쁘니[莫道功名好, 營營日夜忙]”라고 하였다. 사실 공명을 추구하려는 욕망은 누구나 있다. 이러한 시구는 안방준이 자신의 내면에서 이는 공명심을 없애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임진왜란 이후에 안방준은 세상에 대한 뜻이 없어졌다. 게다가 선조 말기에 정인홍 기자헌 등이 이미 세상을 떠난 우계 성혼을 모함하였다. 상중에 있던 안방준은 세상에 대한 뜻을 접고 강호에 은둔하려는 뜻을 세웠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예조판서인 이이첨이 교관으로 천거하였지만 안방준은 두문불출하였다. 계속 천거하겠다는 뜻을 전해오자 안방준은 “세상을 떠난 스승이 무고를 받아서 벼슬에 뜻이 없으니 네가 와서 나를 만난다면 나는 마땅히 우계를 伸雪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한찬남도 찾아왔지만 안방준은 피하고 만나지 않았다.²⁶⁾ 그 뒤로 안방준은 꿈속에서 본 우산으로 낙향하였다. 다음 <高松鶴不群>²⁷⁾ 작품은 안방준의 처세관을 잘 보여준다.

老松千餘尺。천여 자의 늙은 소나무
 黛色參白雲。검은 빛은 흰 구름에 끼었네
 其上有何禽。그 위에 무슨 새가 있나
 軒昂孤鶴存。의젓하고 꼴꼴한 외로운 학이라
 孤鶴意有以。외로운 학은 뜻이 있어서

24) 安邦俊, 『隱峯全書』, 권1, <遣興>.

25) 安邦俊, 『隱峯全書』, 권1, <偶吟>.

26) 안방준, 『隱峯全書』, 附錄上, 四十一年癸丑 先生四十一歲條. 時爾瞻諸賊, 充滿朝廷. 金開尹昨與之比隣. 先生知其不可久留. 方欲南還. 洞中士夫子弟. 以先生爲師表. 相與呈書禮判爾瞻. 請爲教官. 先生力辭得免. 遂杜門不出. 爾瞻又以薦用之意. 言于先生妻孳甥鄭思立曰. 汝之嫡妹夫以亡師被誣. 無意仕宦云. 若來見我. 則我當伸雪牛溪. 汝以此意傳之. 又啓請開南臺之路. 其意蓋在先生也. 韓續男再度來訪. 先生皆避不見. 於是南還之計益決.

27) 安邦俊, 『隱峯全書』, 권1, <高松鶴不群>.

成巢長不群。 집을 짓고 오래도록 혼자였네
不群閒且高。 혼자지만 한가롭고 고매하여
反笑百鳥喧。 도리어 새들의 지저귀에 웃네
啞啞上林鳥。 까악까악 상림원의 새들이
飛飛不如君。 퍼드덕 날지만 그대만 못하네

고송은 변함없는 지조를 상징한다. 그 소나무는 검은색으로 구름이 끼어 있다. 속세에서 벗어난 준엄한 기상이 있는 소나무이다. 그 소나무 위에 외로운 학이 의젓하게 앉아 있다. 혼자 살면서 한가하고 고매하여 못 새들이 시끄럽게 굴어도 웃을 뿐이다. 이는 임금의 정원에서 분주하게 노는 새들을 능가하는 의젓한 모습이다.

여기서 학은 자신을 비유한 말이며 상림원 새는 공명을 추구하는 조정의 관리들을 비유한 말이다. 노송과 상림원이 대비되고 외로운 학과 분주하게 나르는 새를 대비하여 자연에서 한고고하게 지내려는 자신의 뜻을 고송과 외로운 학을 통해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산으로 내려간 안방준은 『抗義新編』, 『湖南義錄』, 『壬丁忠節事蹟』 등을 저술하면서 강호자연을 즐겼다. 그는 <詠懷>²⁸⁾ 두 수를 지었는데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는 즐거운 심정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物外多閒日。 세속 밖엔 한적한 날 많건만
人間少樂時。 인간 세상엔 즐거운 때 적구나
靑山綠蘿月。 청산의 푸른 여라에 걸린 달
吾獨老於斯。 나 홀로 이곳에서 늙고파

其二

莫道心無慾。 마음에 욕심 없다 말하지 마소
尋常渴飲泉。 항상 목마르면 샘물을 마시고
況逢秋月好。 더구나 가을 달과 어울림이 좋아
偏愛不成眠。 몹시 사랑하다 잠마저 못 이루면서

첫째 수는 강호 자연에서 지내는 시간과 세상에 나갔을 때를 비교하면서 청산에서 늙고 싶은 소망을 읊은 내용이다. 세상에 나갔을 때는 사람들과 부닥치며 번거로운 일에 얽매여서 근심거리가 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산에 은둔하면 찾아오는 세인들도 없고 자신이 좋아하는 시문을 즐기며 한가하게 지낼 수 있다. 안방준은 청산에서 이런 삶을 즐기다가 생애를 마치고 싶었던 것이다. 두 번째 수는 목마르면

28) 安邦俊, 『隱峯全書』, 권1, <詠懷>.

맑은 샘물 마시고 맑은 가을 달을 유난히 좋아하는 자신의 마음을 읊은 내용이다. 목마르면 샘물 마시는 것은 타인의 간섭이나 공권력에서 벗어나 자유 의지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자연을 즐기며 맑게 살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 것이다.

강호 자연의 삶을 지향하는 것은 자칫 세상을 단절하여 잊어버리고 자신만의 도를 즐기는 도가적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안방준은 이런 점을 경계하였다. 이는 <題嘯歌堂序後>에서 확인할 수 있다. 林俊은 안방준이 우산으로 터를 잡을 때 도와준 한 고을에 사는 벗이었다. 그가 당호를 ‘嘯歌’로 정하자 “눕다가 걷기도 하고 휘파람 불다 노래하니, 그대의 삶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으리[或臥或步又嘯歌, 爾生此外無所好]”라고 시를 짓고 서문에서 장기간 휘파람 부는 것은 持敬의 도가 아니라고 하였다.²⁹⁾ 이는 임준이 자칫 세상을 오만하게 보고 방외인의 삶을 추종할까 우려하여 경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상에 나가 도를 펼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안방준은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기며 홀로 선을 닦는 삶을 추구한 것이다. 그가 처세적 삶을 선택한 것은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며 심신을 수양하려는 의도가 있다. 7언 절구로 쓴 <偶吟>은 총 세 수로 되어 있다. 그중 첫 번째 시를 보기로 한다

曰川居士安邦俊。월천거사 안방준은
 一生自是悠悠者。일생을 유유히 살아간 사람
 狂歌脫略人間事。미친 듯 노래하며 인간사를 초탈해
 明月淸風松桂下。송계 아래의 밝은 달 맑은 바람이었지³⁰⁾

이 시는 맑고 참신하면서도 호방한 풍격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며 일생동안 유유하게 산 사람이라고 자부하였다. 자신의 삶은 세상의 일을 초탈하여 소나무 숲의 맑은 달과 바람과 같다고 스스로 술회하였다.

그는 두 번째 수의 기승에서는 “풍진세상은 나의 거친 언행을 비웃건만, 단동에다 띠 풀 베어 초당을 엮었네[世塵笑我本疏狂, 丹洞誅茅結草堂]”라고 하여 세상은 자신의 언행을 비웃지만 자신은 자연 속에 띠 집을 짓고 은둔한 사실을 말했다. 세 번째 수의 전결에서는 “남산의 아름드리 나무 울창하게 서서, 날마다 찾아드는 도끼자루 비웃네[南山大木蒼蒼在, 笑却斧斤日日尋]”라고 하여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아무리 모함하려고 해도 자신은 그것에 초탈한 사실을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29) 安邦俊, 『隱峯全書』, 권1, <題嘯歌堂序後>. 林叔瞻以嘯歌名其堂. 叔瞻豪士也. 跡絕城市. 身臥林泉. 嘯而歌. 歌而嘯. 吾知其嘯也歌也. 其諸異乎人之嘯歌也歟. 然長嘯非持敬之道. 吾嘗聞古人矣. 叔瞻毋專以嘯歌爲也. 叔瞻爲之序.

30) 安邦俊, 『隱峯全書』, 권1, <偶吟>.

3. 벗과의 이별과 교류

안방준은 전국의 명망 있는 사우들과 교류하였다. 월사 이정귀, 목재 이귀, 북저 김류, 창랑 성문준, 추탄 오윤겸, 포저 조익 등 당대의 명류들이 그의 절친한 벗이었으며, 우암 송시열, 시남 유계, 백호 윤희 등은 후배들이었다. 이처럼 안방준은 당대 명성이 높은 사우들과 편지를 통해 교류하며 시사를 논의하거나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들과 교류한 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성문준에게 이별하면서 준 시가 있으므로 이를 감상하기로 한다.

別成滄浪 文濬³¹⁾

悵望坡山雪。서글피 파산의 설경을 바라보네
今朝隔江渭。오늘 아침에 강수와 위수로 이별하누나
時危亂又多。시절이 위태롭고 난리 또한 많으니
後日相逢未。훗날에 서로 만날 수 있을는지

성문준은 안방준의 스승 우계 성혼의 아들이다. 안방준은 누구보다도 성문준과 각별하게 친분을 유지해왔다. 안방준이 우산으로 낙향하려 할 때 그 뜻을 가장 지지해준 사람도 성문준이었다. 이 시의 창작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시의 내용으로 유추한다면 우산으로 낙향할 무렵이라고 추정된다. 파산과 우산과의 거리는 천 여 리가 넘는 먼 거리이다. 쉽게 오갈 수 없는 머나먼 곳으로 떠나가는데 시국마저 불안하여 이별하면 살아생전에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멀리 떠나가면서 언제 만날지 모르는 안타깝고 슬픈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다음 <別南宮別坐 冀>³²⁾은 안방준이 별좌 남궁명과 이별하면서 이별한 뒤의 그리움을 서술한 작품이다.

南天歸路幾漫漫。남쪽으로 돌아가는 길 얼마나 한적할꼬
別後猶應夢往還。이별한 뒤 아마도 꿈속에서 오고가리
何處見君眞面目。어느 곳에서 그대의 참 모습을 볼까
良宵皓月屋樑間。맑은 밤 대들보 사이 비친 밝은 달이겠지

이 시의 의경은 이별하면서 자신의 마음속 슬픔 감정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이별한 뒤에 서로 그리워할 감정을 상상하여 서술하였다. 안방준은 남명궁이 남쪽으로 돌아가 길이 얼마나 막막할지 상상해본다. 이별한 뒤에는 그리워도 현실적으로 만날 수 없고 꿈속에서나 왕래할 수 있다. 그래도 보고 싶으면 어디서 그 얼굴을 볼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고는 대들보 사이에 비친 달을 그 얼굴을

31) 安邦俊, 『隱峯全書』, 권1, <別成滄浪 文濬>.

32) 安邦俊, 『隱峯全書』, 권1, <別南宮別坐 冀>.

보는 듯 볼 것이라고 스스로 대답하였다. 이는 두보가 이백을 그리워하며 쓴 시인 <夢李白>의 “지는 달이 대들보에 가득히 비추니, 오히려 그대의 안색을 보는 듯.[落月滿屋梁 猶疑見顏色]”라는 구절을 用事한 것이다.

강호자연에서 한적하게 지내도 대화상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벗이 그리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안방준은 시를 통해 벗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남평태수에게 보낸 작품인 <寄南平太守>³³⁾를 보기로 한다,

昨別今何許。어제 이별하여 지금 얼마나 되었던가
相思日抵年。그리운 마음에 하루가 일년 같구나
非爲千里隔。천리 멀리 떨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未得一床聯。한 평상에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이지
病痼心難鎮。병이 깊어 마음을 진정하기 어렵고
身羸席不使。몸은 수척하여 자리가 편치 않다네
中宵徒耿耿。한밤중에도 공연히 근심스러워
腸斷聽啼鶻。애꿎는 두견새 울음소리를 듣노라

남평태수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평은 영광과 화순 사이에 있다. 안방준의 거처인 우산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남평태수와 이별한 지 겨우 하루 지났지만 안방준의 심정에는 그 하루가 일 년같이 지루하다. 그리운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그리운 마음이 깊은 것은 천 리 멀리 떨어져 있는 물리적인 거리 때문이 아니라 한 평상에서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자신은 병들어 있는 상황에서 벗에 대한 그리움은 깊어만 갔다. 현실적으로 그리운 마음을 풀 수 있는 길은 구슬픈 두견새 소리로 그리운 심정을 달래는 길밖에 없다. 이 작품에는 벗을 보고픈 안방준의 간절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懷人曲>³⁴⁾ 장단구로 쓴 악부체 시이다. 이 작품도 먼 곳에 있는 벗을 그리워하는 심정이 절절하게 표현되었다.

昨與故人別 어제 친구와 이별했는데
別來無盡愁 이별했으나 시름은 다함이 없네
故人不可見 친구를 볼 수 없으니
一日如三秋 하루가 삼년 같구나
懷人懷人人不見 그 사람을 그리워해도 그 사람 보이지 않으니
懷人腸斷人知不 그리움에 애가 끊어지는데 그 사람은 알고 있는지

33) 安邦俊, 『隱峯全書』, 권1, <寄南平太守>.

34) 安邦俊, 『隱峯全書』, 권1, <懷人曲>.

懷人不見時已暮 그리운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해는 벌써 저무니
故人乃在江南頭 친구는 강남에 있구나

친구와 이별한 지는 겨우 하루가 되었다, 그러나 이별했다고 해서 감정까지 다 정리된 것이 아니라 시름은 끝이 없다. 이별로 인한 그리운 감정이 생겨남을 의미한다. 친구를 볼 수 없는 현실은 하루가 삼년처럼 느껴진다. 懷人을 네 번 반복하여 벗에 대한 그리움이 절실함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친구를 볼 수 없어서 하루가 삼년처럼 느껴지고, 친구가 그리워지고, 그리움에 애가 끊어진다고 하여 그리움의 깊이가 더해진다. 친구는 보이지 않는데 삼년 같던 하루가 벌써 저물어간다. 감정 변화에 따라 시간 인지가 달라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회인곡>은 그리운 감정이 깊어짐에 따라 하루의 시간 인지도 지루함에서 빠르게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벗에 대한 그리운 감정이 그대로 독자에게 전해지는 효과를 낳는다.

한편 안방준은 많은 벗들과 시를 통해 교류했다. 안방준이 목사 김원립에게 준 시가 <贈金牧使 元立>³⁵⁾, <與金牧使遊開天寺。作詩贈之>³⁶⁾, <贈金牧使>³⁷⁾ <登松石亭感舊。贈金牧使>³⁸⁾ 등 네 수이다. 이 중 세 수는 내용으로 볼 때 개천사에 가서 지은 것으로 파악된다. 안방준이 평소에 김원립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그렇지만 둘이 깊은 교분을 나누었다. <贈金牧使>를 보기로 한다.

蕭條山寺偶同來。 쓸쓸한 산사에 우연히 함께 찾아들어
冬半寒嚴近臘梅。 매서운 겨울 추위 속에 선달 매화를 보내
多少不平心裏事。 다소 불평한 마음 속의 일을
對床今日爲君開。 찾상을 마주한 지금 그대에게 털어놓네

목사 김원립은 학문적 소양도 갖춘 사람으로 폐모론을 반대하다 광해군의 미움을 받았던 인물이다. 절의를 중시한 안방준이 그를 처음 만났지만 의기가 투합되었다. 두 사람은 겨울에 만나서 개천사를 유람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새

35) 安邦俊, 『隱峯全書』, 권1, <贈金牧使 元立>. 一世吾行獨。 한 세상 나 홀로 살다가 / 知君自不孤。 그대를 알면서 외롭지 않았네 / 兩心何處見。 두 마음을 어디에서 볼까 / 明月照冰壺。 밝은 달이 얼음 병에 비치는 곳.

36) 安邦俊, 『隱峯全書』, 권1, <與金牧使遊開天寺。作詩贈之>. 吾子聞名久。 그대 이름을 들은 지 오래 건만 / 于今始見之。 이제야 비로소 만나 보는군 / 高標人素仰。 높은 기풍은 사람들이 숭앙하고 / 器業衆方推。 뛰어난 학문은 모두가 추앙하네 / 落筆詩千首。 붓을 휘둘러 천 수의 시를 짓고 / 論懷酒百卮。 마음을 말하며 백 잔의 술을 마시네 / 明朝歸去路。 내일 아침 돌아가는 길에는 / 山外雨絲絲。 산 밖의 비가 부슬부슬 내리리.

37) 安邦俊, 『隱峯全書』, 권1, <贈金牧使>.

38) 安邦俊, 『隱峯全書』, 권1, <登松石亭感舊。贈金牧使>.

두 사람은 오래 만나 친분을 나누는 관계처럼 친숙해졌다. 안방준이 불평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정도로 둘의 관계가 친밀해졌다.

이처럼 안방준의 시에는 벗과 이별하는 슬픔과 그리워하는 감정이 솔직하게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의기가 맞는 사람을 만나면 쉽게 친숙해지고 속내를 터놓은 안방준의 순수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IV. 결론

이상으로 안방준의 도학정신과 한시 세계를 분석하였다. 은봉 안방준은 우계 성혼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절의를 지킨 인물들의 행적을 수집 정리하는데 평생을 바친 인물이다. 이는 절의를 중시하는 그의 도학정신이 근거에 있다.

그는 명망있는 유자를 절의를 중심으로 명현과 진유로 구분하였다. 학문이 있는 사람은 명유, 절의를 실천한 사람은 진유가 되었다. 절의는 도를 사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이는 당시 학풍이 지적 탐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실현성이 부족한 병폐에 대한 대응론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내용을 중심으로 안방준의 한시 세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실천도학의 지향에서는 안방준이 도학을 실천해가는 면모를 밝혔다. 어려서부터 강호자연 속에서 도의를 닦고 실천하려는 뜻을 품은 안방준은 국가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의병을 일으켜 신하로서의 충심을 다하였다. 윤리의 실천이 성학의 기초임을 밝힌 안방준은 신하로서 절의를 지켜 충성을 다해야 함을 진정으로 강조한 사실을 밝혔다.

둔세적 처세에서는 공명을 저버리고 강호자연을 즐기는 면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안방준의 한시에는 둔세불민의 시정이 잘 드러나 있었다. 강호자연에서 학처럼 고고한 삶을 추구하고 세상사를 초탈하여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벗과의 이별과 교유에서는 벗과 이별하면서 이는 슬픔과 그리움을 서술한 한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안방준은 벗들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또한 시를 통해 벗들과 친밀하게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

2023 국학자료
조사·수집 공동학술대회

은봉 안방준의 의병활동과 當代史 정리

이욱(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안방준의 의병 활동
 - III. 안방준의 당대사 저술과 의미
 - IV. 맺음말
-

은봉 안방준의 의병활동과 當代史 정리

이욱 |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은봉 안방준은 17세기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로서 의리의 실천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는 성리학이라는 학문에 침잠하는 것보다 절의를 실천하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하였고, 그의 삶이 곧 ‘절의’의 실천이었던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당대의 사람들이 안방준을 평가할 때 반드시 ‘절의’ 혹은 ‘절개’ 두 글자가 포함되었다. 실록에 실린 그의 졸기에서는 “성품이 깨끗하고 절의를 숭상했다.”고 하였다.³⁹⁾ 김수흥은 안방준이 남쪽 지역의 선비로서 기상과 절개를 숭상할 만하다고 평가하였으며,⁴⁰⁾ 송시열 역시 맑은 의지와 높은 절개가 사람의 이목을 놀라게 한다고 하였다.⁴¹⁾

현대 연구자들의 안방준의 삶과 사상에 대한 평가 역시 마찬가지였다. 안방준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절의가 안방준의 삶과 사상을 관통하는 가치였다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초기의 연구는 안방준의 삶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⁴²⁾ 이후 한국철학사 분야에서 학문연원과 사상을 절의의 입장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나왔다.⁴³⁾ 역사학계에서는 안방준의 사상이 서인 산림의 입장을 대변하며 서인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하는 연구도 나왔다.⁴⁴⁾ 이와 함께 안방준의 절의사상을 형성과 실천, 그리고 특징으로서의 진유론으로 나누고, 각각을 분석한 연구도 나왔다.⁴⁵⁾ 이 연구에서는 절의사상의 실천 또는 표현 형태가 의병항쟁과 당대사 저술을 통한 절의인에 대한 추송이었다고 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안방준의 절의사상의 실천이라고 하는 의병 항쟁과 당대사 저술에

39) 『효종실록』 권13, 효종 5년 11월 己亥.

40) 『효종실록』 권19, 효종 8년 12월 壬申.

41) 『은봉전서』 3 부록, 「神道碑銘」.

42) 안동교, 「은봉 안방준의 진유적 삶의 여정」 『향토문화』 18, 1998.

이해준, 「국역은봉전서(1) 해제」 『국역 은봉전서(1)』, 신조사, 2002.

43) 황의동, 「은봉 안방준의 학문연원과 학풍」 『한국사상과 문화』 21, 2003.

최영성, 「안방준의 의리사상과 정신사적 의의」 『한국철학논집』 34, 2004.

44) 고영진, 「17세기 전반 호남사림의 학문과 사상-안방준·고부천·정홍명을 중심으로」 『한국사학사연구』, 나남출판사, 1997.

45) 박미향, 「은봉 안방준의 절의사상」 『역사학연구』 38, 2010.

대해 집중해서 살피는 것이 이 글을 작성한 목적이다.

안방준의 의병 항쟁은 병자호란 당시 의병을 다루면서 일부 언급한 연구가 있다.⁴⁶⁾ 하지만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의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안방준의 당대사 서술에 대해서는 안방준의 임진왜란 관련 저술이 『선조수정실록』과 이후의 의병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거나,⁴⁷⁾ 기축기사 중 논란이 되는 이발 노모의 죽음에 대한 기사의 정치적 활용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⁴⁸⁾ 하지만 안방준의 역사 서술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그 의미나 배경 등에 대해 고찰한 연구는 없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안방준의 의병활동의 구체적인 모습과 의미를 살피겠다. 이어 평상시 절의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안방준이 택했던 당대사 서술 방식과 내용을 살피겠다. 이를 통해 안방준의 절의사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II. 안방준의 의병 활동

1. 임진왜란

임진왜란 당시 안방준은 스승인 죽천 박광전을 따라 의병에 참여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박광전은 처남인 문위세와 문인 안방준, 정사제 그리고 전 현감 임계영과 함께 도내 열읍에 격문을 보내 700여 명의 의병을 모집하고 보성 관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임계영을 좌의병장으로 추대하고 문위세를 糧餉官, 박근효를 參謀官, 정사제를 종사관으로 하는 기본적인 부서 조직을 갖추고 ‘虎’자로 장표를 삼아 전라좌의병이라고 칭하였다. 그리고 문인인 안방준을 양호도체찰사 정철의 군중에 파견하여 연락 참모의 역할을 맡게함으로써 조정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하였다.⁴⁹⁾ 이 당시 갓 스무살이었던 안방준은 의병진영과 체찰사의 군영을 왕래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당시 체찰사였던 정철에게 시의적절한 계책을 주장하여 정철의 인정을 받기도 하였다.⁵⁰⁾

임진왜란 당시 안방준의 의병 활동이 특별한 공적을 거두지 못했다. 다만 정유년에 일본군을 피하여 대원산으로 들어가다가 일본군을 만나 벌어진 사건이 눈에 띈다. “당시 일본군이 남원을 함락하고 전라도의 여러 읍에 분포하니 선생은 늙으신 부모님과 죽천 선생을 모시고 대원산으로 피난하였다. 적이 산 아래를 지나다가 피난민을 보고 칼을 휘두르면 난입하니 사람들이 모두 도망하였다. 선생은 앉아서

46) 류창규, 「병자호란과 호남의병」 『남도문화연구』 21, 2011.

47) 정구복, 「임진왜란 사료에 대한 사학사적 검토」 『전북사학』 35, 2009.

48) 정호훈, 「조선후기 당쟁과 기록의 정치성」 『한국사학사학보』 33, 2016.

49) 조원래, 「박광전의 거의와 그 일가의 의병운동」 『퇴계학과 한국문화』 32, 2003, 138~139쪽.

50) 『은봉전서』 부록 권1, 「연보」.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적 한 명이라도 죽이고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수십 명을 이끌고 강가로 내려가 싸웠다. 적장이 화살에 사살되자 적이 패주하였다. 일행이 그에 힘입어 온전하였다.”⁵¹⁾ 정유재란 당시 안방준은 적극적으로 일본군에 저항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소극적이거나 향리를 침입한 일본군과 맞서는 형태의 향보의병의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2. 정묘호란

안방준이 의병장으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호란 때였다. 은봉은 정묘호란이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이미 호란을 예견하고 대비하고자 하였다. 1623년 3월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반정 공신인 김류에게 편지를 보내 군병을 훈련시켜 오랑캐의 침략에 대비하라고 충고하였다.⁵²⁾ 그 해 가을 암행어사 장유가 방문했을 때에도 ‘국가가 유신하는 때를 맞아 심원한 계책을 때맞춰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인심을 수습하고 군병을 훈련시키는 것이 오늘의 급선무’임을 강조하였다.⁵³⁾

그의 예측대로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정부는 김장생을 호소사로 삼고 의병을 규합하는 임무를 맡겼다.⁵⁴⁾ 김장생은 그 명을 받고 안방준을 의병장으로 추천하는 장계를 올렸다. 그리고 안방준에게 의병 거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장황하지만 이때 김장생이 안방준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랏일이 몹시 급박하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 이 國難을 당하여 의병을 규합하려면 진정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인물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은 나라의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의리상 먼저 국난에 달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의병을 모집하려고 한다면 공이 아니고서 그 누가 하겠습니까. …… 바라건대, 정의를 분발하여 대장기를 세우고서 鄉兵을 거느리고 나와 함께 임금을 위해 일한다면 또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나의 큰 바람에 부응해 준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공을 의병장으로 삼아 주기를 청하는 狀啓를 이미 올렸습니다.⁵⁵⁾

이 편지를 보면 김장생은 시세가 급박하고 또 의병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인망이 높은 인물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안방준이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먼저 장계를 올려 그를 의병장으로 추천한 다음 안방준에게 의병 거의를 촉구하는

51) 『은봉전서』 부록 권1, 「연보」. ; 안동교, 앞의 글, 20쪽.

52) 『은봉전서』 3, 「與北渚金相公」.

53) 『은봉전서』 부록 권1, 「연보」.

54) 『사계전서』 권46, 부록 「거의록」.

55) 『사계전서』 권3, 「與安士彦 邦俊」.

편지를 보내고 있다. 안방준은 이에 호응하여 의병 수백명을 이끌고 전주로 가서 領撫使 이원익에게 시의적절한 방비책을 건의하였다.⁵⁶⁾ 이후 안방준과 고순후 등이 양호 지방에서 모집한 의병은 여산에서 은진으로 갔다가 다시 청주로 향해 갔다. 그곳에서 의병에 대한 지휘권을 호소사 김장생에게 넘긴 다음 출병 명령을 기다렸다. 그러나 2월 15일 이후 和議가 성립될 기미가 엿보이므로 召募兵이 있더라도 보내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서 싸움터에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다. 3월 3일 강화가 성립되면서 그대로 의병은 해산되었다. 이에 안방준은 의병을 해산하고 향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⁵⁷⁾

3. 병자호란

1636년 12월 9일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인조는 12월 19일 청나라 침략에 맞서 의병 거의를 촉구하는 교서를 내렸다.⁵⁸⁾ 이 교서를 읽은 호남의 사족들은 의병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옥과현감 이흥발 등 5인이 주축이 되어 의병을 모집하였다. 이들은 12월 25일 도내에 격문을 보내 의병을 모집하였는데, 이들이 보낸 격문에는 각 군현별로 모의도유사, 유사 등이 내정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호남 지역 대부분을 아우르는 호남 의병 조직을 염두에 두었다. 이흥발 등은 각 지역별로 의병을 모아 1637년 1월 20일 여산에서 모이자고 하였다. 이 주장은 호남 의병의 큰 지침이 되면서 각 지역의 모의청 담당자들이 대체로 1월 초부터 군사와 군량을 모아 여산으로 향하기 시작하였다. 1월 17일 정홍명이 관찰사 종사관으로부터 호남 의병장으로 임명되고 또 소모사를 겸함으로써 호남 의병의 지휘권을 갖게 되었다. 1월 20일 기일에 맞춰 여산에 모인 호남 의병은 28일 공주를 거쳐 청주에 이르렀다. 여산에서 6일 정도 머물렀다가 출발한 것이다.⁵⁹⁾

그런데 이흥발과 별개로 움직였던 안방준은 이 부대에 합류하지 못하였다. 안방준은 이흥발보다 앞선 12월 23일 의병 모집에 나섰다. 안방준은 의병을 모집하기 위해 별도로 의병청을 두고 도유사를 정하였다.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안방준의 의병은 보성과 능주, 화순 등지의 사람들을 주축으로 약 190여 명에 달하는 의병을 모집했다.⁶⁰⁾ 다음의 표에서도 드러나지만 안방준 의병진에 가담한

56) 이에 대해 류창규는 안방준은 김장생이 거의를 요청하기 이전에 의병을 일으켜 독자적으로 행동하였으며, 김장생 의병진에 합류하기 이전 전주에 있던 이원익에게 합류했다고 하였다(류창규, 앞의 글, 297쪽).

57) 이장희, 「정묘·병자호란시 의병 연구」 『국사관논총』 30, 1991, 200쪽.

58) 『호남병자창의록』 1, 「敎文」.

59) 류창규, 앞의 글, 284~285쪽.

60) 박미향, 앞의 글, 198~199쪽. 안방준의 병자의병 거의 사실을 기록한 『병자창의록』의 1780년 초간본과 1864년 중간본을 비교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초간본에는 196명, 중간본에는 206명이 나온다고 한다(신해진, 앞의 글, 343쪽). 문중 인물의 의병 참가 여부가 문중의 家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간본에서 참가 인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초간본도 마찬가지이다. 김광혁은 100여명이라고 하였는데 초간본에는 거의 200명에 가까운 인물이 의병에 참가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병의 핵심은 보성을 비롯해, 흥양, 장흥, 능주 출신이 대부분이다. 특히 보성과 능주 출신이 다수인데, 이는 안방준의 거주 지역과 연관이 깊다. 보성 출신 안방준은 능주에도 거주하였는데 그런 인연이 의병 모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⁶¹⁾

『은봉창의록』에 의거해 안방준 부대의 조직과 구성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안방준 의병 조직⁶²⁾

직책	출신지	성명
대장	보성	안방준
군관	흥양	신지후, 김여형
	보성	김종원, 김정망, 이강, 정영철, 선영길, 김점, (출신) 김섬
	장흥	김태웅, 장영, 백안현, 김유신, 남기문, 김기원
	능주	양지남
참모관	보성	선시한
서기	능주	이화, 원리일, 정엽, 김여용
	보성	안후지, 안신지, 손각
	장흥	윤동야
군량관	보성	이무신
방량관	보성	(생원) 제경창
隨陪	보성	(가리) 박무립, 천충립
旗手	화순	(교노) 경옥, 안금
軍牢手	보성	(노) 응택, 의일
驅從	보성	(교노) 하상, 남금
부장	보성	(봉사) 민대승
군관	능주	정연, 정문리, 구체증
	보성	윤홍립, (주부) 박유효, 한종임, 장후량
서기	능주	정문웅, 송응축, 민간
기수	화순	(교노) 생이, (사노) 순금
구종	능주	(교노) 길이, 춘산
종사관	장흥	김성명(개명 유신)
군관	능주	문제극, 최경제
서기	능주	김영
기수	낙안	(內宦保) 김추원, (砲保) 김언남

안방준 의병진은 의병 대장, 부장, 조사관을 축으로 그 아래 각기 군관과 서기를 두는 체제를 갖추었다. 안방준 의병대장 직속으로 군관과 참모관, 서기가 있었으며, 군량을 담당하는 군량관과 방량관을 두었다. 그리고 군기를 관리하거나 수종하는 사람들이 각 임무를 맡고 있었다. 군관이나 서기를 맡은 이들은 사족 출신이며,

61) 류창규, 앞의 글, 294쪽.

62) 이 표는 류창규, 위의 글, 295쪽의 표를 전재하였다.

기수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은 노비나 향교 노비들이 주축이 되었다. 假吏의 참여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교 조직이 동원되었으며, 향촌에서 향역이나 군역을 보조하는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까지 가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을 모집하기 위해 많은 시일이 필요했던 것 같다. 안방준 부대는 여산에 집결한 호남 의병이 청주로 출발한 다음에야 여산에 도착한 것이다. 그것은 안방준이 금구에 도착하여 전라관찰사 이시방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는 이시방에게 ‘순찰사가 호산(여산)에 머물면서 명령을 내리고 체부의 종사관이 중도에 머물면서 관군을 나누어 보내 흩어진 병졸과 군적에 빠진 장정들을 독촉하여 선발하면 다시 군대가 위세를 펼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⁶³⁾ 이를 보면 안방준이 금구에 도착했을 때 이시방을 비롯한 군대는 이미 여산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체부 종사관 김광혁은 안방준 부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김광혁이 아뢰었다.

“사대부들 중에 나이가 많은 자들은 모두 境上에 모여서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젊은이들 중에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교화가 밝지 못하여 사람들이 학식이 없어서 그런 것일 뿐입니다. 安邦俊은 보성 사람으로 70살의 늙고 병든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성으로 모집하여 앞장서서 향병을 거느리니, 그 수가 거의 1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늙고 병들어서 난리에 달려갈 수 없었으므로 경상에 와서 정홍명에게 의탁하고자 하였는데, 정홍명의 군대가 흩어지고 난 뒤라서 이 군대를 거느리고 單身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에서 방황하며 끝내 큰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⁶⁴⁾

이를 보면 안방준이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계인 여산에 도착했을 때 정홍명의 부대는 이미 해산한 상태였다. 정홍명 부대는 1월 28일 청주에 도착해 약간의 전투를 벌인 다음 2월 4일 청과 이미 강화했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하였다. 따라서 안방준이 늦게 도착함으로써 다른 호남 의병들과 합류하지 못하고 여산에 머물다가 해산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안방준이 여산 합류 시점을 맞추지 못한 것은 의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때문으로 보인다. 의병에 합류한 이들이 대체로 나이든 사람들이었고 실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이 넘는 병력을 모집하여 여산으로 합류하였음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젊은 사람으로도 적군과 맞서서 싸우기 힘든 상황인데 나이든 유생이 주를 이루었다는

63) 『은봉전서』 권3, 「與李巡察時昉別紙」.

64) 『승정원일기』 56책, 인조 15년 2월 22일.

것은 이미 내부의 취약점을 갖고 출발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결국 강화도 수비가 무너지고 청과 講和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야만 했다.⁶⁵⁾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당시 안방준이 이끌었던 의병부대는 사실 의병으로서 전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활동을 멈추어야 했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와 달리 두 차례 호란 당시에는 의병활동이 훨씬 저조하였다. 그것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했거나 곡식을 바쳐 나라에 이바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는 그 대가로 제대로 된 예우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 인조의 실정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 역시 의병 모집의 부진을 초래했다.⁶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방준은 정부에서 의병을 촉구하기 이전이나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의병 거의에 나섰고, 노구를 무릅쓰고 전장터로 달려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김장생의 지적처럼 호남의 저명한 학자이자 인망이 높은 안방준이 의병의 기치를 올렸기 때문에, 200명에 가까운 의병을 모집할 수 있었다. 안방준이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절의’가 국난의 시기에 행동으로 표출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안방준의 당대사 저술과 의미

1. 당대사 저술 목록과 분류

1) 학맥 및 동서분당과 관련된 당대사 저술

안방준은 자신이 생존하던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저술을 많이 남겼다. 총 11개의 저술이 있는데, 이는 다시 두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안방준의 학맥과 관련된 인물들을 변론하는 내용의 저술이다. 중봉 조헌의 사적과 遺文을 수집하여 편찬한 『항의신편』, 1575년부터 1650년까지 약 70여년간에 걸쳐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을 둘러싼 시비곡절을 변론한 『혼정편록』, 1589년의 기축옥사의 전말을 정리한 『기축기사』가 있다.

조헌은 이이와 성혼의 제자이며 매우 강개한 인물이었다. 절의를 중시한 안방준은 포은의 은과 중봉의 붕을 따서 본인의 호를 은봉이라고 했을 정도로 조헌을 존중했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조헌과 반대 당파였던 동인에서는 매우 비판적으로 간주하는 인물이었다. 심지어 선조는 奸鬼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동인들은 人妖, 凶險, 巧詐, 邪毒 등등 매우 모욕적인 말로 매도했다. 심지어 이름을 얻기 위해 죽었다고까지 비아냥거리거나, 조아무개는 일개 충신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그의 학문은 취할 바 없다고 할 정도로 폄하했다.⁶⁷⁾ 중봉 자신도 ‘못 소인배들에게

65) 박미향, 앞의 글, 199쪽.

66) 이장희, 앞의 글, 211~213쪽.

67) 이기용, 「중봉 조헌의 개혁사상과 의병활동」 『한국 사상과 문화』 15, 2002, 222쪽.

나보다 더 심하게 노여움을 산 사람은 없다.’라고 술회할 정도였다.⁶⁸⁾

안방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매우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안방준은 비록 자품과 조예는 조광조나 이이보다 못하지만 견식이 정책 입안 능력은 조헌이 훨씬 뛰어나며, 기사 이후 최고의 眞儒라고 조헌을 평가하였다.⁶⁹⁾ 특히 임진왜란 이전부터 일본의 침략성과 위험성을 경고했던 선견지명과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호남을 사수한 공로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절의와 충절의 표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항의신편』은 조헌의 글을 수습하여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안방준의 저술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안방준의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대사 저술의 하나로 간주해도 될 것이다.

『훈정편록』은 당쟁과 관련된 내용은 배제한 채 율곡과 우계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였다. 율곡은 동서분당 당시 심의겸과 정철을 옹호한 점, 심의겸에게 붙여 출세했다는 점, 젊어서 불교에 심취했다는 점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우계는 선조가 피난할 때 지근거리에 있으면서도 모른체 했다는 점, 기축옥사 때 최영경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이다. 이 책의 특징은 이이와 성혼을 공격하는 입장과 옹호하는 입장을 순서대로 수록하였을 뿐이고 논평을 더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안방준의 저술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기축기사』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방준은 기축옥사 당시 정철의 언행을 무조건 옹호하고 있지는 않았다. ‘국문할 때 정철은 간혹 잔뜩 취하여 농담까지 하여 크게 인심을 잃었다.’라고 하였다. 또 ‘정철이 옥사를 다룰 때 전후로 고문을 받아 죽거나 귀양을 가서 죽은 사람들이 어찌 하나 하나 다 억울함이 없겠는가? 정철은 위관에 임명되어 간혹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여 인심이 만족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표현도 있다. 정철의 제자 양천경 등이 당파의 마음으로 정개청을 끌어들이는 점과 정철이 사적인 감정으로 정개청에게 과하게 처벌한 점 등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기축옥사 당시 정철의 행적 중 가장 비판을 받았던 이발의 노모와 어린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에 대해 그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데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발의 노모를 국문해서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정철이 아닌 류성룡이라는 주장이었다.

안방준은 자신이 사실을 날조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택당 이식은 노모의 죽음 당시 위관이 류성룡이라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편지를 안방준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안방준은 정철이 위관이라는 주장은 이발의 동생 이길의 후손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당시 이길의 딸들은 모두 어려 구체적인 전말이나 실상을 알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발의 노모 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전말은 그녀의 사위인 이유원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이유원은 자신의 6촌 대부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유원의

68) 『중봉집』 卷首, 「항의신편발」.

69) 『은봉전서』 10, 「우산문답」.

1남 3년 중 둘째 딸이 보성에 사는 함평 군수 이응남에게 출가하였는데, 이응남은 안방준과 대대로 이웃하여 살았다고 한다. 게다가 윤씨는 이응남의 처를 유독 사랑하여 자기 집에서 직접 양육하다가 보성으로 시집보냈다. 때문에 일의 전말을 가장 잘 아는 이유원과 이응남을 통해 확인한 것이므로 자신의 주장이 가장 사실에 근접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방준의 주장에는 허점이 있었다. 그는 경인년 5월에 윤씨가 사망했다고 하였는데, 이때는 류성룡이 아직 대신에 임명되지 않았고 안동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선조수정실록』에서는 당시의 위관을 이양원이었다고 정리함으로써, 정철과 류성룡 모두 윤씨의 죽음과 무관한 것으로 정리하였다.⁷⁰⁾

『기축기사』의 이 논란으로 안방준은 남인으로부터 끊임없는 비판을 받았다. 당파에 현혹되어 세상을 속이고 흑백을 변란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를 배향한 서원이 훼손되기까지 하였다. 지금도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없지만, 안방준이 증언을 토대로 기축옥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려고 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방에 거주한 데다가 관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직 임명과 관련 자료 등 폭넓은 자료를 열람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의 저술이 서인의 입장과 정당성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본인이 견문한 바로는 옳지 않은 이유로 비판받는 것에 대한 변론의 측면이 더 강했다고 평가된다. 이는 임진왜란에 대한 당대사 저술에서도 강하게 드러나는 바이기도 하다.

2) 임진왜란 및 의병 관련 저술

안방준의 역사 저술 중 임진왜란에 관련된 저술은 8편이다. 이 저술들은 『선조수정실록』에 대부분 반영되었고, 『호남절의록』의 기초자료가 되었다.⁷¹⁾ 또 윤희의 「諸將傳」에도 영향을 주었다.⁷²⁾ 그의 저술을 저작 연대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진주서사」. 안방준이 24세 때인 1596년에 저술했다. 2차 진주성 전투의 전말을 기록한 것이다. 주로 순절한 이들의 사적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본인이 목격한 내용과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진주성 전투를 생생하게 목격했던 임우화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했다. 훗날 이항복의 「오성일기」를 읽고 1627년 12월 수정하였다.

② 「임정충절사적」. 1615년 43세 때의 저술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 김여물, 유극량, 변응정, 이종인, 이잠, 고득뢰, 신호 등 8인의 사적을 수록하였다.

70) 정호훈, 앞의 글, 167쪽.

71) 정구복, 앞의 글, 131쪽.

72) 정해은, 「17세기 후반 윤희의 「제장전(諸將傳)」 연구」 『이순신연구논총』 33, 2020.

③ 「삼원기사」. 1615년의 저술이다.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웠으나 이후 모함을 받아 죽음 김덕령, 김응회, 김대인 세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수록한 글이다.

④ 「호남의록」. 1616년 44세 때의 저술이다. 최경회를 비롯한 호남 의병장 16명의 사적을 기록한 것이다. 1607년 윤근수를 만나서 대화하던 중 윤근수가 고경명과 김천일 이외에는 호남 의병장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하면서 호남 의병장이 몇 명인지 물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본인이 상세하게 사정을 알고 절의를 위해 순절한 이 16명을 뽑아 그 행적을 저술한 것이다.

⑤ 「백사논임진제장사변」. 1633년 61세 때의 저술이다. 백사 이항복이 임진왜란 당시의 여러 장수들의 공과를 평한 것에 대해, 본인의 시각으로 비평을 가한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의 전공을 평가하는 안방준의 기준이 잘 드러난 저술이다.

⑥ 「부산기사」. 1644년 72세 때의 저술이다. 임진왜란 초기 이순신이 지휘하는 수군의 전공을 기술하면서, 특히 정운의 충절을 강조하는 저술이다. 전라도 수군의 경상도로의 진격과 연이은 승리가 정운의 공임을 역설하였다.

⑦ 「노량기사」. 1645년 73세 때의 저술이다.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인 노량해전에 대한 내용이다.

⑧ 「임진기사」. 연대 미상. 임진왜란 이전 일본의 위협에 대비하자는 이이와 조헌, 김천일의 고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김성일의 거짓 보고로 인해 전쟁에 대한 대책이 미비했음을 비판하는 내용과 의병장의 충절로 전란의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헌 등에 대한 평가가 박한 점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들 저술은 「노량기사」와 「임진기사」를 제외하면 일종의 평전 성격의 글들이다. 수많은 의병장 중에서 그가 다룬 인물은 총 38명이며, 그 중 호남 출신이 27명에 달한다. 이에 대한 안방준이 서인의 입장을 대변했다거나,⁷³⁾ 호남 출신 의병장의 활약상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⁷⁴⁾ 하지만 선정 인물들에 대한 안방준의 설명을 분석해보면 위의 설명과는 다른 인물 선정 원칙이나 저술 동기 내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절을 달리하여 서술하겠다.

2. 의병 관련 저술 원칙과 목적

1) 저술 원칙

「호남의록」 발문에서 안방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무의 선비로서 적의 칼날에 죽은 사람들이 어찌 모두 명백하게 절의를 위해 죽은 무리라고 하겠는가? 만약 절의를 위해 죽은 흔적이 명백하지 않으면, 외람된

73) 고영진, 앞의 글.

74) 박미향, 앞의 글.

명성을 얻게 해서는 안된다. 대개 이 10여 명 외에 혹 명백하게 절의를 위해 죽은 자가 없지는 않겠으나,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자는 장차 훗날의 군자를 기다려 계속 집필할 것이다. …… 나는 병을 앓아 문을 닫고 사느라 보고 들은 바가 넓지 못하고 또 사람이 하는 말이란 간혹 공정하지 않아 한 도의 인물도 오히려 상세히 알 수 없다. 하물며 먼 지방의 인물 중에 어떻게 참으로 비방할 사람과 칭찬할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⁷⁵⁾

그는 세간의 평가가 엄정하지 않으며 절의로 평가되는 인물 중에도 진가가 섞여 있을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 때문에 본인이 상세하게 검증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면 선부르게 평가하기 보다는 후일 다른 이가 대신할 것으로 믿고 유보하였다. 이 때문에 자신이 상세하게 알고 있는 인물들로 저술 대상을 한정하였고, 당연히 호남 출신 인물이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사실 확인 방법은 본인의 경험과 함께 사건 목격자들의 증언을 참고하고 비교·검토하는 것이었다. 「기축기사」에서 이유원과 이응남 처의 증언을 토대로 했던 것, 「진주서사」에서 본인의 목격담과 임우화의 증언을 비교 검토한 것, 거기에 「오성일기」를 읽고 글을 수정한 것, 1차 진주성 전투에 대한 저술이 이종사촌이자 실제 전투 참가자였던 정유경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 등이 그 예이다.

다음으로 저술 대상 인물을 선정하는 원칙은 세 가지였다고 보인다. 하나는 진실과 거짓이 섞이면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이들을 재평가하는 것이었다. 그는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 죄인이 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바로잡는 것을 주요한 목적의 하나로 보았다. 의병장으로 큰 공로를 세웠음에도 훗날 모함을 받아 죄인으로 전락한 이들을 모아 「삼원기사」를 저술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반대되는 사례이지만 안위에 대한 이항복의 평가도 마찬가지이다. 안방준이 보기에 안위는 절의로 평가하는 데 하자가 있는 인물이었다. 전장에서 도망치려다 실패하고 죄를 받는 대신 전투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그가 세운 공은 절의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방준이 「백사논임진제장사변」을 저술한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보인다.

「진주서사」의 저술 목적 중 하나가 김천일에 대한 류성룡의 평가를 반박하는 데 있는 것도 또 다른 사례이다. 류성룡은 ‘진주성 함락이 전적으로 김천일의 실책에서 비롯되었으며, 죽음에 임하여 통곡함으로써 마치 죽음을 두려워한 듯하였다.’는 다소 조롱섞인 평가를 김천일에게 하였다. 이에 안방준은 그것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호남을 지킨 공이 김천일에게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했다. 광교 전투에서 병사 김준룡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소 싸움을 독려하여 끝내 승리했다. 그러나 흑자는 퇴각하여

75) 「호남의록」 발문.

산사에 있었다 하고 혹자는 패군의 장수라고 김준룡을 비판하였고, 결국 김준룡은 직책을 박탈당하고 축출되고 말았다. 아울러 영장 이권도 김준룡과 함께 공을 세웠으나, 김준룡과 함께 죄를 물어 파직시키고 감사의 정탐병으로 좌천당했다. 그는 종사관 김광혁에게 편지를 그들의 복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⁷⁶⁾ ,

두 번째는 세운 공에 비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들을 발굴하는 것이다. 「호남의록」에서 명성이 널리 알려진 김천일과 고경명을 제외하고 당시로서는 다른 지역까지 명성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을 선정한 것이 좋은 예이다.

마지막으로 안방준이 ‘절의’로 평가한 이들의 공통점은 도망가거나 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사지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그 사례로 호남 출신이 아닌 인물들이 많이 있는 「임정충절사적」의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 번째 실린 송상현은 인근의 다른 수령과 달리 도망가지 않고 동래성을 사수하다 순절하였다. 김여물 역시 탄금대에서 살 길을 찾아 도망가라는 신립의 권유를 거부하고 끝까지 항전하다 전사하였다. 유극량 역시 신갈의 조방장으로 임진강을 방어할 때 병사들이 모두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끝까지 임진강을 사수한 인물이다. 변응정 역시 조현의 전사 소식을 듣고 적진에 뛰어들어 분전하다 전사하였다. 이종인, 이잠, 고득되는 2차 진주성 전투 때 순절인이다. 신호는 홀로 남원성을 지키다 순절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부산기사」에서 정운의 공을 설명할 때 늘 나오는 구절이 다른 이들은 도망가거나 머뭇거릴 때 혼자 앞장서서 전투를 벌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진주서사」에서도 순절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진주성을 나가 전투를 회피하거나 전투에 겁을 먹고 머뭇거리는 이들과 대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산숙과 홍함을 대비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양산숙과 홍함은 김천일의 명을 받아 유정에게 구원병을 청하는 편지를 전하러 갔다. 그러나 유정은 구원병을 보낼 뜻이 없었다. 이에 홍함은 돌아오는 길에 도망하였다. 양산숙은 “위급함을 만나 구차하게 도망하여 主將만을 홀로 사지에 빠지도록 하는 것은 義가 아니다.”라고 하고, 혼자 말을 타고 성으로 돌아오니 모든 군사가 놀랐다고 하였다.

2) 저술 목적

안방준이 충절인에 대한 평전을 정력적으로 저술한 목적이나 배경 중 하나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 의병장에 대한 포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선이 망하지 않은 것은 명나라 조정의 대신 및 우리나라의 여러 의병장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때문이라고 하였다. 선조가 서울로 돌아온 뒤에는 국사를 그르친 여러 신하들은 모두 사직하고 나라를 망하게 한 죄를

76) 『은봉전서』 권3, 「與金從事光赫 丁丑」.

벌어야 했다. 그런데 스스로 나라를 회복하고 임금을 扈從한 공이 있다고 말하며 의기양양하여 염치가 없었다. 심지어 여러 장수들의 무공을 포상할 때에도 오로지 청탁에 의지하여 사랑하고 미워하니, 공이 있는 자가 기록되지 못하고 공이 없는 자가 기록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다.⁷⁷⁾

이와 같은 잘못된 포상은 결국 인심과 세도를 망치는 것이었다. 그가 보기에 국가에 절의가 있는 것은 사람에게 원기가 있는 것과 같았다. 사람에게 원기가 있으면 비록 심한 병에 걸리더라도 죽지 않는 것처럼, 국가에 절의가 있으면 비록 큰 환란이 닥쳐도 멸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존망은 오직 절의를 扶植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⁷⁸⁾ 절의를 세워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포상이 없는 것은 결국 사람이나 국가의 원기를 복돋아주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안방준은 절의를 숭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국가의 원기를 복돋아주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는 기억할만한, 하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의 행적을 복원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가의 원기를 세우는 중요한 밑거름이었다. 두 번째는 행적이 확인된 인물에 대한 포상을 청하는 것이었다. 안방준은 정운, 최경희, 문홍헌, 최대성 등에 대한 적절한 포상을 요구하였다. 1624년에는 최경희와 문홍헌의 포상을 외면하는 감사의 처신에 대해 항의하는 편지를 조익에게 보내기도 하였다.⁷⁹⁾

세 번째는 충절인의 음택이 후손들에게도 미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김류에게 편지를 보내 조현의 세 자식들이 각각 옥천, 문의, 황간에 살면서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현실에 항의하였다. 광해군의 시대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반정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상황인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인조대에도 여전히 조현의 세 아들이 유리걸식하는 상황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귀에게는 최경희와 황진과 같은 충신의 자손들에게 관직을 주는 것이 정당한 조치임을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진주서사」를 함께 동봉한다고 하였다.⁸⁰⁾ 안방준이 임진왜란 관련 당대사를 저술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심지어 같은 편지에서는 죄를 지은 이에 대한 사면까지도 당당하게 요구하였다. 당시 고경명의 아들이자 고종후의 동생인 고용후가 죄를 지어 처벌 당할 상황에 처해있었다. 안방준은 고경명 집안은 부자가 충절을 다하였고 또 효성이 지극하기까지 한, 이른바 ‘忠孝雙全’의 가문이었다. 이러한 집안의 후손에 대해서는 중죄라도 사면을 해주어도 좋다는 입장이었다. 윤방에게는 선조가 송상현의

77) 『은봉전서』 권8, 「백사논임진제장사변」.

78) 『은봉전서』 권3, 「여연평이상공귀별지」

79) 『은봉전서』 권3, 「與浦漚 丙戌」

80) 『은봉전서』 권3, 「여연평이상공귀별지」

아들 송인에게 했던 사례를 예로 들며 고용후의 사면을 청하기도 하였다. 즉 송상현의 아들 송인이 장물죄를 범해 죽게 되자 선조가 특별히 석방을 명하면서 “송상현은 죽음으로 나에게 보답했으니 나는 그의 아들로 상현에게 보답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충절에 대한 보답으로 자식들을 우대하는 것, 이러한 조치야말로 백성들에게 절의를 행하도록 권유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보았다.

안방준은 절의가 갖는 가치와 의미를 백성들이 인식하기 위해, 절의를 실제로 실현한 인물들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였다. 다만 실제로는 절의를 행한 인물이 아닌데도 외람되게 그 명성을 차지하고 있거나, 혹은 충분한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목격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면 그것은 오히려 절의에 해가 되는 것이고 요행을 바라는 풍조가 만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안방준은 자신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 자신이 많은 사례들을 찾을 수 있는 전라도의 주변 인물들의 행적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절의를 실천하였음이 분명한 의병장의 행적을 저술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이들에 대한 포상과 그 후손들에 대한 우대 조치를 이끌어냄으로써 절의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였다. 바로 여기에 안방준이 당대사를 저술한 목적과 동기가 있었던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겠다.

안방준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갓 스무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인 박광전을 좇아 의병 거의에 참여하였다. 비록 큰 공적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의병 진영과 체찰사의 군영을 왕래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정유재란 때는 소극적인 형태의 향보의병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반면 두 차례의 호란 때는 의병장으로서 적극적인 모습을 띠었다. 물론 당시 안방준이 이끌었던 의병부대는 사실 의병으로서 전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활동을 멈추어야 했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와 달리 두 차례 호란 당시에는 의병활동이 훨씬 저조하였다. 그것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했거나 곡식을 바쳐 나라에 이바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는 그 대가로 제대로 된 예우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 인조의 실정으로 인한 민심의 이반 역시 의병 모집의 부진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방준은 정부에서 의병을 촉구하기 이전이나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의병 거의에 나섰고, 노구를 무릅쓰고 전장터로 달려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김장생의 지적처럼 호남의 저명한 학자이자 인망이 높은

안방준이 의병의 기치를 올렸기 때문에, 200명에 가까운 의병을 모집할 수 있었다. 안방준이 평생에 걸쳐 추구했던 ‘절의’가 국난의 시기에 행동으로 표출된 것에 다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안방준의 당대사 저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안방준의 학맥과 관련된 인물들을 변론하는 내용의 저술이다. 『항의신편』 등 3편의 저술이 있다. 그는 이 세 저술은 서인의 입장과 정당성을 대변하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본인이 견문한 바로는 옳지 않은 이유로 비판받는 것에 대한 변론의 측면이 더 강했다고 평가된다.

두 번째는 임진왜란 및 의병과 관련된 저술로 총 8편이 있다. 이들 저술은 일종의 평전 성격의 글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가 다룬 인물이 총 38명인데 그 중 호남 출신이 27명에 달한다. 그것은 그가 행적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물로 저술 대상을 제한한 결과였다.

그리고 그는 많은 의병장 중에서 크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인물을 선정하였다. 하나는 진실과 거짓이 섞이면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이들을 재평가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세운 공에 비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들을 발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방준이 ‘절의’로 평가한 이들의 공통점은 도망가거나 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사지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인물을 선정하고 당대사를 저술한 것은 절의를 숭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국가의 원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었다. 안방준은 절의가 갖는 가치와 의미를 백성들이 인식하기 위해, 절의를 실제로 실현한 인물들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였다. 다만 실제로는 절의를 행한 인물이 아닌데도 외람되게 그 명성을 차지하고 있거나, 혹은 충분한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목격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면 그것은 오히려 절의에 해가 되는 것이고 요행을 바라는 풍조가 만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안방준은 자신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 자신이 많은 사례들을 찾을 수 있는 전라도의 주변 인물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의를 실천하였음이 분명한 의병장의 행적을 저술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이들에 대한 포상과 그 후손들에 대한 우대 조치를 이끌어냄으로써 절의를 중시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였다. 바로 여기에 안방준이 당대사를 저술한 목적과 동기가 있었던 것이다.

2023 국학자료
조사·수집 공동학술대회

은봉 종가 소장 교령류의 현황과 내용

유지영(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은봉 종가 소장 교령류 문서의 인물별 자료 현황
 - III. 은봉 종가 소장 교령류의 문서학적 내용 및 사료적 가치
 - IV. 맺음말
-

은봉 종가 소장 교령류의 현황과 내용

유지영 |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I. 머리말

죽산안씨는 고려말 문하시중을 지낸 순흥안씨 안향의 증손자 안원형(安元衡, 1318~)을 시조로 한다. 안원형은 개성에서 관직생활을 하다가 말년에 어머니 광산김씨의 고향 광주 평창동(현 담양군 대전면 평창리)으로 하향하였다. 죽산(竹山)은 안원형의 봉작명인 죽산군(竹山君)을 딴 명칭이라고 한다. 6세 안민(安民, ~1467)대에 이르러 보성선씨와 혼인하게 되면서 보성에 정착하여 보성파를 이루었다. 안민은 훈련원 참군으로 1467년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했다가 순절했기에 적개공신 3등에 책록되고 중훈대부 종부시 주부로 증직되었다. 7세 안범(安範, 1460~1523)은 호가 만휴정(晩休亭)으로 은봉 안방준의 고조가 된다. 청안·진안·예안 현감으로 재직 중에 선정을 베풀고 기근을 구제한 일로 백성으로부터 거사비(去思碑) 3개를 받았으며 백성들이 그의 집에 보은을 위한 담장을 쌓아줬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곳을 담안마을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는 생원과 진사에 동시에 합격했고, 1507년 정국원종공신(靖國原從功臣)에 녹훈되었다. 안방준의 증조 8세 안수륵(安秀崱, 1483~1523)은 1507년 사마시에 합격했고, 1516년에는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때 학포 양팽손, 굴정 윤구와 동시 합격하여 일방삼현(一榜三賢)이라 일컬어졌으며, 정암 조광조의 천거로 의정부 사록(司祿)에 임명되었다. 안방준의 조부 9세 안축(安軸, 1500~1572)은 1531년 생원과 진사시에 동시 합격했으며, 1542년에는 문과에 급제하였고, 1547년 사간원 정언, 다음해엔 사헌부 지평, 1554년 나주목사를 지냈다. 윤희원의 집권 이후 벼슬하지 않고 낙향하여 김인후, 임억령과 함께 호남삼고(湖南三高)로 불리웠다. 11세 은봉 안방준(安邦俊, 1573~1654)은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지만 학행과 도의로 천거를 받아 조정에서 벼슬을 제수 받고 임란과 호란에 의병으로 활동하고, 강학활동을 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그는 사후 두 차례 증직되었고, 1821년에는 문강(文康)의 시호를 받았다.

안방준이 문강공파의 연원이 되었기 때문에 은봉 종가에 현전하는 교령류 문서는 은봉 안방준을 시작으로 그를 포함한 4대가 받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글에서는 은봉 종가에 남아 있는 교령류의 현황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은봉 종가 소장 교령류 문서의 인물별 자료 현황

1. 소장 교령류 문서의 종류와 수량

은봉 종가에 남아 있는 교령류 문서는 주로 임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교령류란 국왕의 명에 따라 발급된 문서를 말하는데, 그 중에는 왕의 포교문서인 교서(敎書), 왕의 뜻을 전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전교(傳敎), 임명문서인 고신(告身), 훈유의 성격인 유서(遺書)와 유지(有旨), 과거 합격 증서인 백패(白牌)와 홍패(紅牌), 상소에 대한 대답인 비답(批答) 등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은봉 종가에 남은 것은 임명문서인 고신(告身)이 40건으로 주를 이루며 그 외 유지(有旨)가 2건, 백패(白牌)가 1건, 사후 증직교지가 2건, 시호를 하사한 증시교지가 1건, 부인과 부모의 추증 교지가 4건 남아 있다. 안방준의 증시(贈諡) 과정에서 생산된 사헌부와 사간원의 서경 완문이 총 2건 남아 있지만 이는 관부에서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교령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음은 이상에서 설명한 은봉종가 소장 고문서의 종류와 수량이다.

순번	문서명	점수
1	구전차첩	4
2	고신_교첩	36
3	고신_교지	13
2	유지	2
3	추증교지	4
4	증직교지	2
5	증시교지	1
6	백패	1
총계	교령류	63

[표 2] 은봉 종가 소장 교령류의 종류와 점수

교령류 문서의 수취자별 현황과 그 내용을 분석하기 전에, 개별 유형의 문서가 인사행정 과정에서 어떤 목적으로 발급하였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⁸¹⁾

81) 임명고신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교지(敎旨)의 형식으로 작성되는 고신교지, 추증 교지, 증직교지, 시호교지 등에 관한 연구는 유지영의 「조선시대 관원의 임명고신에 관한 연구」(『고문서연구』 00, 0000)를 참조하였고, 그 외 교첩(敎牒) 등에 관한 연구는 『조선시대 임명 문서 연구』(한

우선 구전차첩(口傳差帖)은 조선시대 정식 관원의 임명장인 고신(告身)과는 달리 구전정사(口傳政事)를 거쳐 임명되는 차첩이다. 조선시대에 관리를 임명하는 일을 ‘정사(政事)’라고 불렀는데, 정사는 정기 인사인 ‘도목정(都目政)’과 수시 인사인 ‘산정(散政)’이 기본이었고, 약식 절차로서 ‘구전정사(口傳政事)’가 있었다. 도목정과 산정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망단자(望單子)에 비의(備擬)하는 절차를 ‘전주(銓注)’라고 불렀다. 동반(東班) 관원의 전주는 이조에서 주관하였고, 서반(西班) 관원의 전주는 병조에서 주관하였다. 이조와 병조의 전주는 ‘정안(政案)’이라는 인사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즉, 구전정사란 이·병조의 정관(政官)으로 구성된 이비(吏批)·병비(兵批)가 궐내로 들어가 정사를 거쳐 임명하는 정식의 정사 방식이 아니라, 승정원의 승지를 경유하여 승지가 임금께 상주하여 낙점한 후 이를 이·병조로 통보하는 약식의 임명절차였다. 이 경우에도 국왕의 재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망단자를 들여야 했다.

이런 임명방식으로 구전차첩에 임명장을 기록한 관직은 모두 무록관(無祿官)이거나 삼관권지(三館權知)였다. 삼관권지 또한 과거급제자를 교서관, 승문원, 성균관의 말단직에 배속시킨 임시직으로서 녹봉을 주지 않았다. 이 구전차첩으로 임명하는 문서에는 직사(職事)를 언급할 뿐, 자급(資級)을 부여하는 경우는 없다.

다음으로 고신(告身)은 살아있는 관원의 임명장을 말한다. 고신에는 4품 이상의 관원을 임명하는 문서와 4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하는 문서로 나뉘며, 이를 문서 형식의 특징을 살려 각각 교지(教旨)와 교첩(教牒)으로 부르기도 한다. 모두 교(教)자가 들어가는 것은 왕의 명에 따라 시행하기 때문이다. 4품 이상의 고신인 교지는 왕이 사헌부나 사간원 등의 관원 검증절차인 서경(署經)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임명하는 형식으로 문서가 작성되고, 실제 서경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국왕의 명령으로도 4품인 인원을 갑자기 1품으로 승급시켜 임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관원의 임명은 『경국대전』 등에 정리되어 있는 정해진 규례에 따라 수행되기 때문에, 몇몇 특지(特旨)에 의한 관직 임명의 사례는 있었지만, 기본 원칙은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임명할 수 있는 후보군을 들이고 국왕이 낙점하는 절차에 따랐다.

4품 이하 관원의 고신(告身)은 문서 내에 ‘봉교(奉敎)’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조선초기 임명장에는 ‘첩(牒)’자를 찍었기 때문에 ‘교첩(教牒)’이라고 불렀다. 교첩은 이조나 병조에서 망단자를 들여 국왕이 낙점(落點)하여 임명하면 그 후 사헌부와 사간원의 서경(署經)을 거쳐 임명장이 주어졌다.

다음으로 유지(有旨)는 조선시대 왕명의 전달을 담당하는 승정원에서 국왕의 전지(傳旨)를 관원에게 전달할 때 발급하는 문서이다. 담당 승지가 ‘왕께서

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을 참고 하였다.

이러저러한 말씀이 계셨다’라는 형식으로 작성하여 수취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며, 그 종류는 상래유지(上來有旨), 비답유지(批答有旨), 물대죄유지(勿待罪有旨), 포상유지(褒賞有旨), 급마유지(給馬有旨), 전유유지(傳諭有旨), 봉심유지(奉審有旨) 등 다양했다. 이 중 은봉 종가에 남아 있는 2건의 유지는 안방준에게 관직을 제수한 후 직임에 임하도록 서울로 올라 올 것을 하유(下諭)한 상래유지(上來有旨)이다.⁸²⁾

추증교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에게 국왕이 관계 및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4품이상 고신과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고, 발급일자 좌우편에 작은 글씨로 ‘누군가로 인하여 자급과 관직이 수여되었다’라는 내용을 적은 문서이다.

증직교지는 죽은 사람이 후손 등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효열(孝烈)·학덕(學德)·국가에 대한 공로(功勞)가 있었던 이유로 임금에게 자급과 관직을 수여받는 형식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문서 양식은 4품 이상 고신과 같다.

증시교지는 문·무관 정2품 이상의 실직을 지낸 관원에게 시호를 청하는 이가 있고, 행장이 만들어진 경우 국왕이 칭호(稱號)를 내리는 형식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백패는 과거 중 소과(小科, 생원 혹은 진사시)의 합격자에게 주는 합격증서이다. 예조에서 시험을 관장하기 때문에 합격증서 또한 예조에서 발급하였다.

2. 수취자별 문서의 종류와 수량

이 장에서는 은봉 종가에 남아 있는 교령류를 수취자별로 나누어 그 종류와 수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해를 돕기 위해 수취자의 간단 이력을 함께 정리하였다.

우선 수취자별로 남아있는 교령류의 종류와 수량은 다음과 같다.

순번	인물	문서종류(건수)	총수량
1	안방준	구전차첩 (3) 교첩 (5) 교지 (7) 유지 (2) 추증교지 (2) 증직교지 (2) 시호교지 (1)	22
2	안후지	교첩 (5) 추증교지 (2)	7

82) 有旨와 관련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문서입문』2, 2021, 85쪽.

노인환, 「조선시대 승정원 有旨의 유형과 제도」, 『규장각』 5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노인환, 「조선시대 임명 관련 上來有旨 연구」, 『고문서연구』 36, 한국고문서학회, 2010.

3	안전	백패 (1) 교첩 (13) 교지 (2)	16
4	안음	구전차첩 (1) 교첩 (10) 교지 (2)	13
5	안두상	교첩 (3) 교지 (2)	5

[표 3] 은봉 증가 인물별 교령류 문서의 종류와 수량

1) 안방준 관련 교령류 문서

안방준(安邦俊, 1573~1654)의 자는 사언(士彦), 호는 은봉(隱峰)·우산(牛山)·빙호자(氷壺子)·우산병복(牛山病覆)·은봉암(隱峰菴)·매환옹(買還翁)·대우암(大愚庵)·백천거사(白川居士) 등으로 보성군 오야리(현재 보성읍 우산리 2구 귀골마을)에서 태어났다. 박광전(朴光前)·박종정(朴宗挺)·성훈(成渾)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 당시에는 의병을 일으켰다. 특히 병자호란 때에는 독자적으로 의병을 일으켜 의병장이 되어 대병력을 이끌고 전라도 경계 여산까지 진격하였다. 또한 그는 '기축기사', '임진기사', '진주서사', '기묘유적', '훈정편록', '항의신편' 등 수많은 역사저술을 편찬하였다. 그 가운데 임진왜란 때에 활약한 호남의병에 대한 저술은 선구적이면서 단연 돋보였다. 만년에는 화순 쌍봉동(현재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에 은봉정사(隱峰精舍)를 건립하여 강학활동을 하며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효종 때 유일(遺逸)로 좌의정 조익(趙翼) 등의 천거를 받아 관직에 진출하였고, 사후에는 이조참판(1657)과 이조판서(1813)에 증직되었고, 1821년(순조 21)에는 문강공(文康公)으로 증시되었다.

1657년(효종 8)에는 안방준의 학덕과 충절을 기리기 위해 호남 유림들이 대계서원(大溪書院)을 우산리 대계 마을에 건립하였지만, 정철(鄭澈)의 관작 추탈 문제에 연루되어 훼철되었다. 대계서원은 1694년(숙종 20) 성균관 유생 홍취일 등이 상소하여 복설되었으며, 1703년 사액을 받았다. 이후 1787년 흥수로 서원이 크게 훼손되자 보성읍 신흥동 금녕김씨 재실터로 옮겨졌다고 전한다. 그러나 1868년 흥선 대원군의 서원훼철령으로 훼철된 후 2012년에 복설되었다.

안방준과 관련한 교령류 문서로는 과거에 급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거로 처음 관직에 나아가면서 받은 구전차첩을 비롯한 구전차첩 3건, 정식으로 이조와 병조에서 삼망을 올리고, 서경도 받으면서 발급되었던 교첩이 5건, 왕의 임명으로 서경을 받지 않았던 교지가 4건, 사헌부 지평과 장령으로 임명되면서 직위에

임할 것을 지시하는 전지(傳旨)를 전달한 유지 2건, 안방준이 사후에 정3품 당상관이 되고, 정2품 관직에 증직되면서 받은 증직교지 2건, 죽은 안방준의 처 정씨(鄭氏)가 안방준을 따라 함께 높여지면서(從夫職) 받은 정3품 숙부인 추증교지와 2품에 해당하는 정부인 추증교지가 각 1건씩 남아 있다. 그 외 1821년 순조로부터 문강(文康)의 시호를 받으면서 발급된 증시교지 1건이 남아 있다.

순번	문서내용	발급시기	발급자	품계/관직	임명장 내용(소자방서)
1	구전차첩	1624.01.14	이조	종6품상/ 종9품	동몽교관/差定
2	"	1624.08.13	이조	종6품상/ 정종6품	사포서별제신상철遷轉 右帖下前教官宣教郎安邦俊/차정
3	"	1625.02.25	이조	/정종6품	사포서별제 右帖下前別提安邦俊/차정
4	교첩	1625.08.23	이조	정6품상/ 종6품	前別좌승의랑→승의랑행오수도찰방
5	"	1632.04.10	이조	종6품상/ 종6품	전찰방선교랑→선교랑제원도찰방
6	"	1632.05.08	이조	정6품하/ 종6품	선교랑제원도찰방 →승훈랑행제원도찰방/壬五別加
7	"	1639.04.18	이조	정6품하/ 종6품	전찰방승의랑→승의랑행전생서주부 ※특장: 己卯
8	"	1644.08.14	이조	정6품하/ 정6품	전주부승의랑→승의랑형조좌랑
9	교지	1645.06.10	이조	종4품하/ 종5품	조봉대부 행종묘서령
10	"	1645.08.11	인조	종4품하/ 정5품	선략장군 행세자익위사익위
11	"	1649.11.08	이조	정3품당 하/정6품	통훈대부 행공조좌랑
12	"	1649.12.17	이조	종4품하/ 정5품	조봉대부 행사헌부지평
13	유지	1649.12.17	승정원		사헌부지평에 임명하였으니 속히 올라오라는 임금의 뜻 전달.
14	교지	1651.10.28	이조	정3품당 하/정5품	통훈대부 행사헌부장령
15	유지	1651.10.28 9	이조		사헌부장령에 임명하였으니 속히 올라오라는 임금의 뜻 전달.
16	교지	1653.03.14	이조	정3품당 상/정3품	통정대부 공조참의
17	"	1653.07.18	이조	정3품당 상/종4품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
18	추증교지	1653.07.18	이조	정3품당 상/ /	숙인정씨 증숙부인자/통정대부공조참의안방준처 依大典從夫職

19	증직교지	1657.12.17	이조	종2품하/ 종2품	통정대부공조참의→贈 가선대부이조 참판겸동지의금부사/贈職事承傳
20	추증교지	1658.10.16	이조	정종2품/	贈숙부인정씨→贈정부인/贈가선대부 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안방준처 의 대전종부직
21	증직교지	1813.06.	이조	정2품하/ 정2품 학문, 창의, 척화 등의	贈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 성균관제주오위도총부부총관行통정 대부공조참의安邦俊 贈자헌대부이 조판서겸지의금부사성균관제주시강 원찬선오위도총부도총관者/力學 諸先正之所已詡也募兵赴亂倡義錄之 所由作也斥和一疏無愧於先正臣趙憲 封事而至於混定名編以正聖祖石室之 書其卞誣史光 聖德之功宜有百世必 酬之典特贈正卿之職事承 傳
22	증서교지	1821.01.	이조		贈자헌대부이조판서겸지의금부사성 균관제주시간원찬선오위도총부도총 관 行통정대부공조참의안방준 贈諡 文康公者, 道德博聞日文, 淵源流通日 康.

[표 4] 안방준 관련 교령류

2) 안후지 관련 교령류 문서

안후지(安厚之, 1590~1664)의 자는 덕흥(德興), 호는 송음(松陰)으로 안방준의 장남이다. 족보에 의하면 병자호란시에 아버지를 모시고 거병하여 여산(礪山)에까지 이르렀으며, 강화가 맺어지자 검을 버리고 슬퍼하며 시(詩)를 지었다고 한다. 과거에 급제한 이력이 없으며, 남아 있는 교첩 5건은 모두 아버지에게 내려진 별가(別加)를 대신 수여받는 대가(代加)의 방식으로 7품까지 자급이 올랐다. 자급은 문무관의 품계에 해당하는 말로, 실직(實職)에 제수되지않아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훗날 보사원종공신(保社原從功臣)에 책록된 둘째 아들 안음으로 인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에 추증되고, 그 아내 창녕성씨는 숙부인(淑夫人)이 되었다.

순번	문서종류	발급시기	발급자	품계/관직	임명장 내용(소자방서)	비고
1	교첩	1653.윤7.21	이조	정9품/	학생 안후지→종사랑/父행부 호군안방준사직時 辛三辛七別代加并超	2 陞資
2	"	1653.윤7.27	병조	종8품/	학생 안후지→수의부위/父 행부 호군안방준己二己五己十別加, 資窮代加.	3 승자
3	"	1654.09.24	이조	정8품/	종사랑→통사랑/父행부 호군안방준부사직時辛八二辛八別代加并超	2 승자
4	"	1654.11.09	이조	정7품/	통사랑→무공랑/父행부 호군안방준三辛十別代加并超	2 승자
5	"	1654.11.24	이조	종6품하/	무공랑→선교랑/父행부 호군안방준辛十二癸閏七別代加并超	2 승자
6	추증교지	1681.08.10	이조	정3품/	孺人成氏→贈숙부인/보사원종공신일등통훈대부前行공조좌랑안음씨依承傳封爵	추증
7	"	1681.08.10	이조	정3품당상/정3품	通德郎安厚之→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者/보사원종공신일등통훈대부전행공조좌랑안음考依承傳封爵	추증

[표 5] 안후지 관련 교령류

3) 안전 관련 교령류 문서

안전(安峯, 1614~1686)의 자는 경인(景仁), 호는 소와(邵窩)이며 안후지의 장남이다. 1648년 진사시에 입격하고 조복양의 학행 천거를 받아 1667년 창릉참봉(昌陵參奉)에 임명되었다. 그 이후 종묘서령, 상서원 직장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고⁸³⁾ 그 이후 사포서별제와 의금부도사, 송화연감 등에 임명되었다. 족보에는 조복양이 처음 천거를 하였고, 그 후 이식(李植)이 그를 낭묘지기(廊廟之器)로 칭하였으며, 유성증(兪省曾)이 호연기국(瑚璉器局)으로 윤선거(尹宣舉)가 인각봉취(獐角鳳嘴)라 칭하였다고 한다. 『승정원일기』에는 안전관련 기사가 3건 있으며, 그 내용은 1667년 안전이 창릉참봉에 제수된 것, 1674년 사포서 별제가 된 것, 1675년 1월 28일 송화현감 안전에게 칙사의 월강을 대비토록 하는 내용이다.

안전 관련 교령류 문서는 진사시 시험 합격증인 백패(白牌) 1점, 고신(告身)으로 교첩 13점, 교지 2점, 총 16점이 남아 있다. 교령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진사에 입격하여 백패를 받은 이후 끊임없이 별가(別加), 사가(仕加) 등의 가자를 거쳐

83) 족보 참조.

자급이 올랐고, 관직으로는 창릉참봉, 종묘서 부봉사, 상서원 부직장, 상서원 직장, 사포서 별제, 의금부도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하관 외관직인 조봉대부(朝奉大夫) 송화현감(松禾縣監)에 임명되었다.

순번	문서 종류	발급시기	발급자	품계/관직	임명장 내용(소자방서)
1	백패	1648.09.03	예조		幼學안전 爲進사3등제21인入格.
2	교첩	1667.08.18	이조	종9품/종9품	진사→장사랑 창릉참봉.
3	"	1667.09.11	이조	정9품/	장사랑창릉참봉→종사랑.
4	"	1668.01.27	이조	종8품/	종사랑행창릉참봉→승사랑
5	"	1669.10.03	이조	정7품/	통사랑행창릉참봉→무공랑/己十別加仕加并授
6	"	1670.02.05	이조	종6품상/종9품	무공랑행창릉참봉→선교랑행창릉참봉/庚二別加仕別并授
7	"	1670.03.18	이조	정6품하/종9품	선교랑행창릉참봉→승훈랑행창릉참봉/庚三別加
8	"	1670.07.15	이조	정6품상/	승훈랑행창릉참봉→승의랑/庚七別加
9	"	1671.06.08	이조	정6품상/정9품	승의랑행창릉참봉→승의랑행종묘서부봉사
10	"	1672.03.	이조	종5품하/정9품	승의랑행종묘서부봉사→봉훈랑행종묘서부봉사/壬三別加
11	"	1672.12.21	이조	정5품상/정8품	봉직랑행종묘서부봉사→통덕랑행상서원부직장/仕加竝授
12	"	1673.07.12	이조	정5품상/종7품	통덕랑행상서원부직장→통덕랑행상서원직장
13	"	1674.02.02	이조	정5품상/종6품	통덕랑행상서원직장→통덕랑행사포서별제
14	"	1674.02.02	이조	정5품상/종5품	통덕랑행사포서별제→통덕랑행의금부도사
15	교지	1674.09.15	이조	종4품하/종5품	조봉대부행의금부도사/甲九別加
16	"	1675.01.28	이조	종4품하/종6품	조봉대부행송화현감

[표 6] 안전 관련 교령류

4) 안음 관련 교령류 문서

안음(安崙, 1622~1685)의 자는 경진(景鎭), 호는 송촌(松村)으로 안후지의 둘째 아들이다. 일찍이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신독재 김집(金集)에게 가서 배웠고,

동춘당 송준길(宋浚吉)의 문하에서도 배웠다. 1650년(효종 1)에 생원에 입격하고, 효제경례(孝悌經禮)로 천거되어⁸⁴⁾ 1666년 2월에 동몽교관에 임명되었다. 1672년 12월 21일에는 사포서 별제가 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22일에는 사옹원 주부가 되었다. 1673년 6월 9일에는 사헌부 감찰, 같은 달 6월 24일에는 형조좌랑, 다음달 7월 12일에는 상서원 직장에 임명되었다. 1680년 7월 14일에는 공조좌랑이 되었다. 이상 생원의 입격에서부터 공조좌랑까지의 기록은 『승정원일기』에 나타나는 관직임명 내용이다. 『현종실록』에는 1666년 5월 16일, 전라도 유생 안음 등이 상소를 올려 송시열의 측면에 서서 유세철을 공격하는 예제(禮制)에 관한 상소를 올린 것 1건이 더 기록되어 있다. 이상은 연대기사료에 실린 안음에 관한 기록이다.

그 외 현재 남아 있는 교령류를 통해 보면 그 외에도 1670년에 구전정사로 동몽교관에 제수된 사실과 1670년 3월에 별가(別加)를 통하여 봉훈랑(종5품하)의 자급에 오른 것, 동년 4월에 충무위 부사용이 된 것, 동년 7월 15일에 별가를 받아 봉직랑(종5품상)의 자급에 오르고, 1671년 4월에 병조에서 충무위 부사용에 임명되었으며 10월에는 충무위 부사정, 1672년 3월 20일에는 별가를 받아 통선랑(정5품하)에 오르고, 12월에는 사가(仕加)를 받아 자급이 한 단계 오른 통덕랑(정5품상)이 되고 사옹원 주부에 임명된 것, 1673년 6월 9일 사헌부감찰, 6월 24일에는 형조좌랑, 1680년 7월 14일에는 공조좌랑, 동년 10월 26일에는 운봉현감에 임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남아있는 고문서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상 안음 관련 교령류 문서는 구전차첩 1건, 교첩 10건, 교지 2건으로 총 13건이 남아 있다. 물론 아버지 안후지와 어머니 성씨를 추증한 문서 2건도 그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의문시되는 점은 안음이 1680년 보사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어 그 부모가 추증된 사실이 추증교지로 남아있어 알 수 있음에도 그의 기록이 연대기 자료에 남아있지 않고, 관련 공신문서인 공신녹권, 공신으로 봉작하고 자급을 높여준 고신 등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경신환국으로 인하여 생겨난 보사공신이 1689년 7월 25일 위훈 삭제되었다가, 1694년 10월 12일에 다시 추복(追復)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그의 위훈 삭제는 이미 사후 4년 뒤였기 때문에 차후에 공신의 칭호가 추복된 뒤에 재발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녹권뿐만이 아니라 고신류의 추탈과 재발급은 일반적으로 특별히 청하고 그 발급을 국왕이 재가하지 않는 한 죽은 자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⁸⁵⁾

84) 이상 안음의 정보는 『竹山安氏族譜』(권 4)에 의한 것임.

85) 『양전편고(兩銓便考)』, 동진(東鎭), 세초(歲抄)의 조항에는 '파직 및 직첩의 발급, 서용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신은 본인이 죽었다면 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순번	문서종류	발급시기	발급자	품계/관직	임명장 내용(/소자방서)
1	구전차첩	1670.02.05	이조	/종9품	동몽교관 右帖下진사승의랑안음
2	교첩	1670.03.18	이조	종5품하/	동몽교관승의랑 →봉훈랑/庚三별가
3	"	1670.04.10	병조	종8품/종9품	수의부위행충무위부사용
4	"	1670.07.08	병조	종6품하/종6품	병절교위충무위부사과
5	"	1670.07.15	이조	종5품상/	동몽교관봉훈랑 →봉직랑/庚七별가
6	"	1671.04.결락	병조	종8품/종9품	수의부위행충무위부사용
7	"	1671.10.결락	병조	종7품/종7품	분순부위충무위부사정
8	"	1672.03.20	이조	정5품하/	동몽교관봉직랑 →통선랑/壬三별가
9	"	1672.12.22	이조	정5품상/종6품	통선랑행사포서별제 →통덕랑행사용원주부/仕力啦授
10	"	1673.06.결락09	이조	정5품상/정6품	통덕랑사용원주부 →통덕랑행사헌부감찰자
11	"	1673.06.24	이조	정5품상/정6품	통덕랑행사헌부감찰 →통덕랑형조좌랑
12	교지	1680.07.14	숙종	정3품당하/정6품	통훈대부행공조좌랑
13	"	1680.10.26	숙종	정3품당하/종6품	통훈대부행운봉헌감

[표 7] 안음 관련 교령류

5) 안두상 관련 교령류 문서

안두상(安斗相, 1636~1723)의 자는 추경(樞卿), 호는 낙빈당(樂貧堂)으로 안전(安峯)의 장남이다. 숙종 무진년에 증조 안방준이 무소(誣疏)를 당하자 서울에 올라가 오래 머물면서 여러 도(道)와 관학(館學)인 성균관이 진소(陳疏)하여 신원을 변론하도록 하였고, 갑술년(1694)에 명예를 회복한 뒤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노봉(老峰) 민정중(閔鼎重, 1628~1692)이 그를 칭찬하여 ‘지극한 효성이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했다는 기록이 족보에 있다.

그와 관련한 자료로는 『승정원일기』와 같은 연대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기에 남아있는 교령류의 가치가 더욱 크다. 그와 관련한 교령류 문서는 교첩 3건과 교지 2건이다. 교첩 3건은 모두 대가로 인하여 자급이 높여진 것으로 처음 2회는 삼촌 안회(安{山/會}의 별가(別加)를 대가(代加) 받은 것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 안전의 별가를 대가 받은 것이다. 그로 인하여 정5품 상의 자급인 통덕랑이

되었다. 그 후 1720년에 숙종이 기로소에 들어간 일로 인하여 加資를 내렸는데, 안두상은 당시 나이 80세였기에 정3품 당상의 위계인 통정대부를 제수 받았다. 다음해에 정3품의 무관 자급인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에 임명되었다. 용양위 부호군은 군함(軍銜)을 띠는 체아직으로 실직 없이 녹봉만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 이 자리는 정직(正職)에서 물러난 문무관들을 임시 임명하여 대우하거나 녹봉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 관직으로 우대 관직이었다.

순번	문서종류	발급시기	발급자	품계/관직	임명장 내용
1	교첩	1661.03.	이조	종9품/	학생 안두상→장사랑/삼촌숙도총도사安(山/會)辛二別代加
2	"	1661.07.15	이조	종8품/	종사랑→통사랑/삼촌숙도총도사안회二辛七三辛七別代加并超
3	"	1714.07.20	이조	정5품상/	통선랑→통덕랑/父전현감안전송화현감시甲二別代加
4	교지	1720.03.15	이조	정3품당상/	통정대부/年八十事 大典入耆老所后推 恩加資事 達下
5	"	1721.윤06.	병조	정3품/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

[표 8] 안두상 관련 교령류

Ⅲ. 은봉 증가 소장 교령류의 문서학적 내용 및 사료적 가치

이상으로 은봉 증가 소장 교령류의 내용과 수취자의 관력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상의 교령류가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 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가문의 어떤 인물에 관한 연구를 할 때에는 족보자료, 『승정원일기』, <실록> 등의 연대기 자료, 문집의 연보 및 기타 서발문기문등의 자료와, 개인 저서 등의 자료가 연구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에 연구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인물 연구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문에 남아 있는 고문서 자료는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은봉증가에 남아 있는 교령류에는 위조사례가 없었다.

다음으로 은봉 증가 소장 교령류 문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문서로 안방준을 비롯한 4대의 인물 생존시기가 1573년~1723년, 문서의 발급시기가 1624년~1721년에

결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임명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다 4대에 걸친 임명장이 한꺼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조정으로부터 받은 가문의 영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명장의 내용적 측면으로 보자면 안방준의 경우 과거에 급제하지 않은 이가 천거를 통해 처음 관직에 나아가고 이후 어떠한 관직을 거쳐 시호까지 받게 되는지에 대한 산림 영광의 전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안방준의 아들 안후지의 경우에는 산림으로 관직에 벼슬자리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가자(加資)가 아들에게 어떻게 전수되었는지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안후지의 장남 안전의 경우는 소과에만 급제하고 대과에 급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천거에 따라 능참봉이라는 벼슬을 받기 시작하여 정4품의 교지를 받고 외관 수령직에 임명되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안후지의 둘째 아들 안음의 경우는 소과에 급제한 후 역시 천거를 통해 동몽교관을 시작으로 관직을 착실히 밟아 나가 정3품 당하관인 통훈대부 윤봉현감이라는 외관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의 장남인 김두상의 경우에는 삼촌숙부와 아버지의 가자를 대가 받아 정5품의 자급에까지 이르고 나이가 80이 되어 경로 우대의 측면에서 실시된 노인직을 제수받고, 이후 군함 원록 체아직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임명장의 외형적 규식 상의 측면으로 보자면 문서에 작성된 별가(別加), 대가(代加), 사가(仕加), 사가병수(仕加并授) 등의 용어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며, 안방준의 1639년 전생서주부 임명고신의 발급연도를 간지로 기록한 것을 통해 청에 항거했던 시기의 국정연도표기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병자호란 패배직후 항거에 대한 뜻으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연도표기 방식을 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간지를 사용했던 시기의 문서에 해당함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인장의 인문, 문서의 지질, 작성된 서체, 문자의 배열 방식을 통해 당시 문서의 유형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교령류를 살펴보면 가장 의문이 들었던 점은 안방준의 고신 문제이다.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산림에 은거했던 그가 어째서 임명장이 다수 존재하며 결국 시호까지 받을 수 있었는지가 그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조선 시대의 임명제도와 고신발급에 관한 측면에서 연구가 자세히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시대 관직 임용은 크게 3가지가 있었다. 과거를 통한 선발, 친적이 고위 관원이 있는 것으로 인한 음서로의 등용, 개인의 덕행이나 학문·정치적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한 천거를 통한 임명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방식 중 단연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과거를 통한 선발이었지만 지역에서 학문적 지위나 존망을 받는 위치에 있던 가문에는 천거를 통한 임명 경우가 종종 보인다. 안방준은

바로 이러한 세 번째 경우인 산림의 방식으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던 그의 임명장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것은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해 볼 수 있다.

4품 이상의 관원은 제수하는 날에 관교(官敎)를 작성하여 주는 것이 상례이며, 논박 받거나 서경(署經)154) 을 넘겨 그 직(職)을 보유하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관교를 회수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새로운 관례를 개설한다면 전후가 균일하지 못하게 되어 진실로 상의 분부와 같겠습니다. 【이 한 조목은 헌부가 감찰(監察) 윤선(尹璿)을 논박하고 또 그의 관교(官敎)를 회수할 것을 청한 것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다.】(『중종실록』, 33년 8월 19일 5번째 기사 中)

告身을 받기 전에 공무를 행하다가 죽었거나 혹은 파직된 경우에는 그 고신이 이미 서경이 되어 본조(이조)에 도착한 경우에는 준다.(『경국대전』, 이전, 고신조 中.)⁸⁶⁾

『중종실록』의 1538년 8월 19일 기사와 같이 4품 이상의 관원에게 교부한 임명장은 회수하지 않는 것이 상례라고 했다. 또한 『경국대전』의 조항을 보면 고신이 서경이 완료되었다면 고신을 받을 수 없게 된 죽은 자, 혹은 파직자의 경우라도 발급되었다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들을 통해 관직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서경이 완료되었거나 왕명에 의하여 발급된 임명문서는 본인에게 전달하고 차후 관직에 나오지 않거나, 그로 인해 체직이 되더라도 직첩을 회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관직에 후보군으로 올랐고 3망을 거쳐 국왕의 낙점을 통해 임명된 문서는 그가 직에 나아오고 나아오지 않고를 떠나 그 관직에 임명될 자격을 갖춘 것이므로 임명장을 회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던 산림의 임명문서 연구를 통해서도 임명문서가 효력 범위를 확인할 수도 있겠다.

결국 안방준은 생전 관직이 정3품 당상관인 통정대부 공조참의(정3품직)에 올랐다. 그리고 사후 두 차례의 천거를 통한 증직(贈職)을 거쳐 자헌대부(정2품하) 이조판서(정2품)에 올랐다. 그 후 시호를 받게 된다. 시호는 儒賢 및 死節人으로 드러나는 공적이 있는 자는 비록 정2품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증시가 허락되었다. 그 외 일반적으로는 종친과 문·무 관원으로 실직 정2품 이상을 지낸 자가 시호를 받을 수 있었다.

86) 未受告身前行公物故·或罷職者, 其告身已署經到本曹, 則給之.

IV. 맺음말

이상으로 은봉 종가가 소장하고 있는 교령류의 문서종류, 수량, 인물별 관력, 문서의 가치 등을 살펴보았다.

은봉종가에 남아 있는 교령류 문서는 총 63건으로 구전차첩 4건, 고신_교첩 36건, 고신 교지 13점, 유지 2점, 추증교지 4점, 증직교지 2점, 증시교지 1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임명장의 수취자는 안방준을 시작으로 그 증손자인 안두상에 이르기까지의 4대에 걸친 총 5인의 것이며 발급시기는 1624년~1721년에 이르기까지의 고신과 1813, 1821년의 후대 안방준의 증직·증시 교지로 이루어져 있다.

수취자별 임명내용을 살펴보면 안방준은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 천거를 통해 관직에 올라 시호까지 받게 된 경우이며, 안후지는 아버지 안방준의 자급을 대가 받아 정5품에 이른 사례이고, 안전은 소과에 입격한 후 천거를 통해 능참봉을 시작으로 관직에 진출 정4품 외관직으로 관직을 마친 경우이고, 안음은 소과에 입격한 후 동몽교관을 시작으로 관직에 진출하여 정3품 당하관의 자급과 외관직으로 관직을 마친 경우이고(생전 공신에 책록되었으나 공신관련 교령류 문서는 남아 있지 않음), 안두상은 삼촌숙과 아버지 안전의 자급을 대가 받아 정5품의 자급에 까지 이르고 나이가 80이 되어 경로우대의 측면에서 실시된 노인직을 제수 받고, 이후 군함 원록 체아직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시기적으로 끊기지 않고 4대의 임명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천거로 인한 관직 진출과 시호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점, 1600년대의 비교적 이른 시기의 교지가 다수 남아 있는 점, 연대기자료에 이력이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의 임명정보가 확인 되는 점 등이 이 교령류가 가진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문서의 작성규식 등에 대한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원문

『죽산안씨족보』

『경국대전』

『대전회통』

『양전편고』

『전율통보』

『중종실록』

『숙종실록』

『현종실록』

2. 저서 및 논문

김봉좌 외, 『한국 고문서 입문』 2, 국사편찬위원회, 2021.

노인환, 「조선시대 임명 관련 上來有旨 연구」, 『고문서연구』 36, 한국고문서학회,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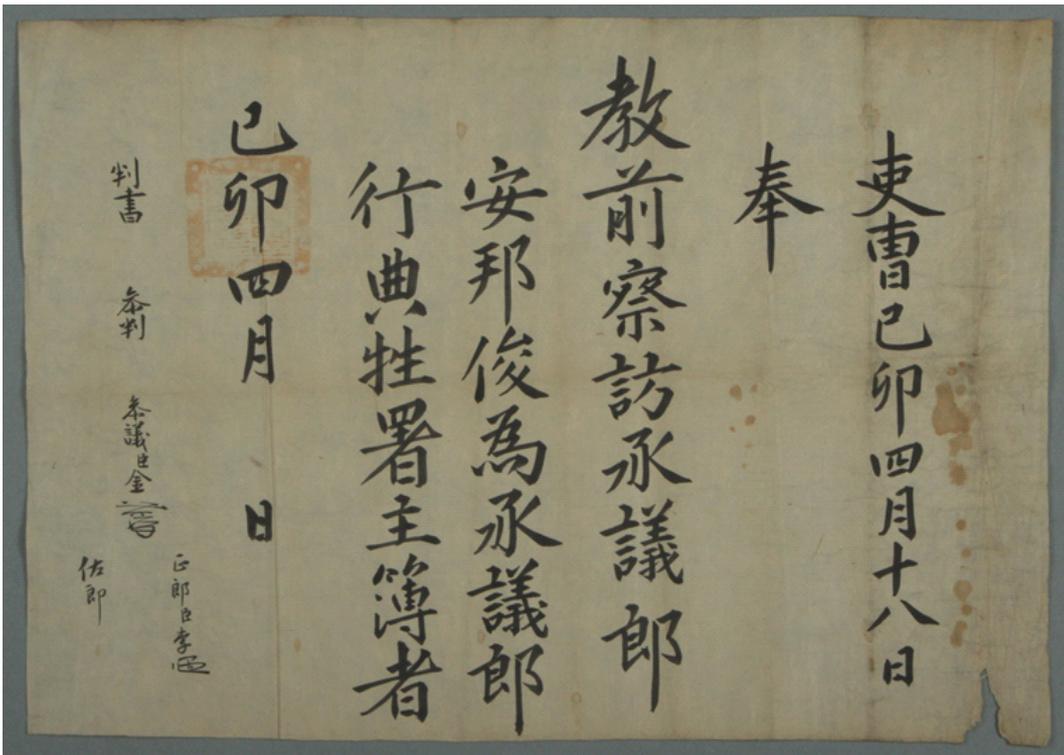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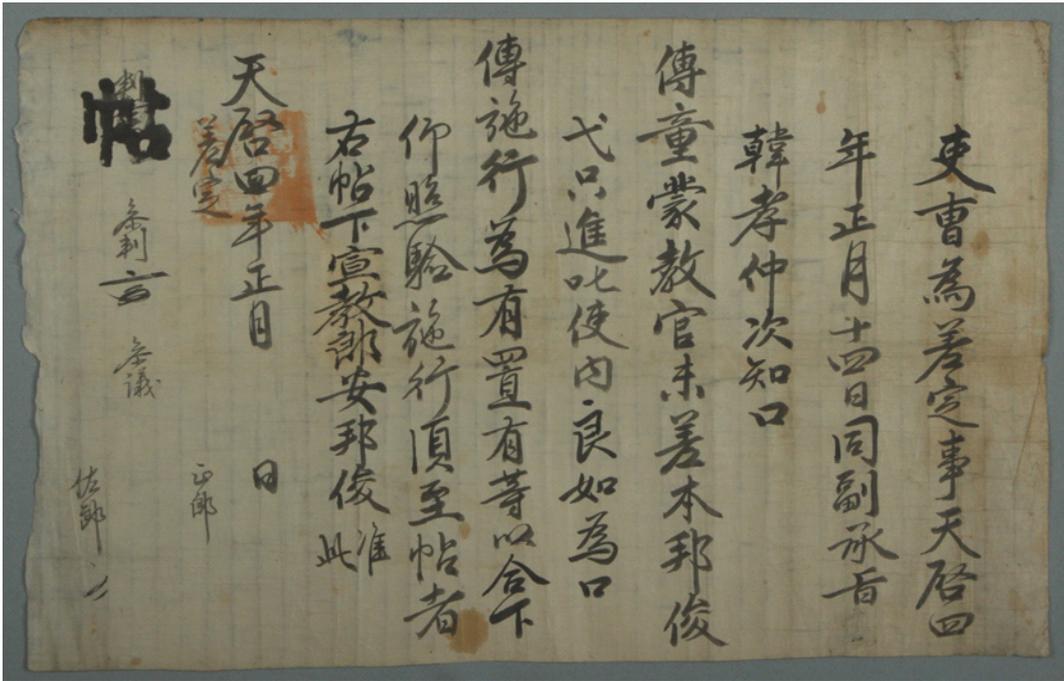
노인환, 「조선시대 승정원 有旨의 유형과 제도」, 『규장각』 5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7.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관교 教旨의 문서형식」, 『고문서연구』 30, 한국고문서학회, 2007.02.

유지영, 『조선시대 임명 문서 연구』,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2014.06.

은봉종가 소장 교령류 문서의 현황

1. 안방준(安邦俊, 1573~1654)의 관력과 교령류 문서



教旨

安邦俊為朝

奉大夫行司

憲府持平者

順治六年十二月十七日



右副承旨南

右副承旨南

今以爾為司憲府持平爾其乘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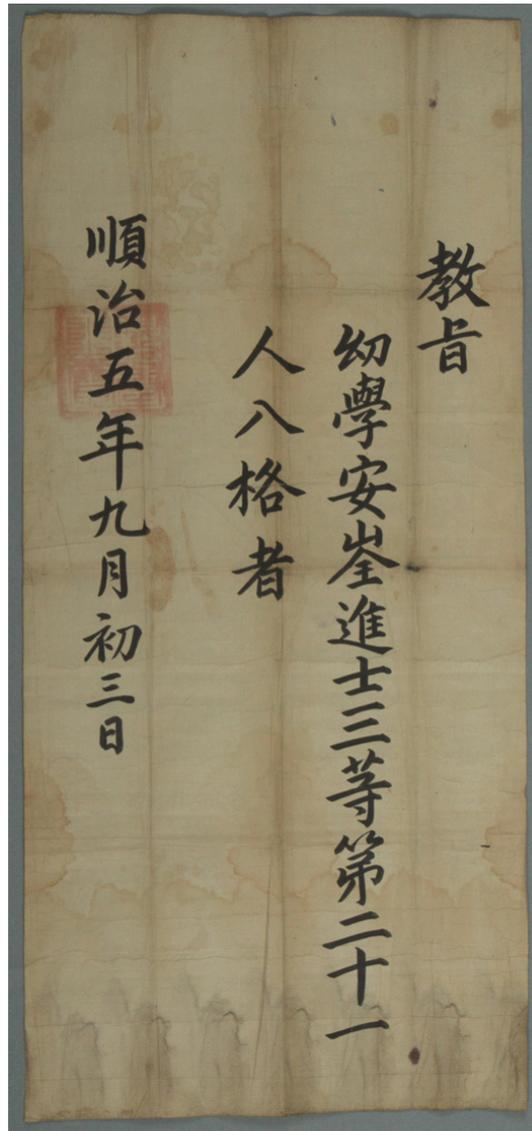
斯速上未事有

旨

順治六年十二月十八日



2. 안전(安峯, 1614~1686)의 관력과 교령류 문서



吏曹康熙六年八月

十八日奉

教進士安峯為將

仕郎

昌陵參奉者

康熙六年八月 日

判書金三

參判

參議

法郎

平部正右位

教旨

安峯為朝奉

大夫行松禾

縣監者

康熙十四年正月十八日

3. 안음(安峯, 1622~1685)의 관력과 고신

吏曹為差定事康
 月初五日行都承旨臣姜栢
 次初口
 傳童蒙教官未差奉安峯
 只進此使內良如為口
 傳施行為有置有等以合下傳
 照驗施行須至帖者
 右學士承議郎安峯
 此
 康熙九年二月 日
 正郎
 帖
 奉判
 參議
 法部

教旨
 安峯為通訓大
 夫行工曹佐郎
 者
 康熙十九年七月十四日

教旨

通德郎安厚之贈

通政大夫承政院

左承旨兼經筵叅

贊官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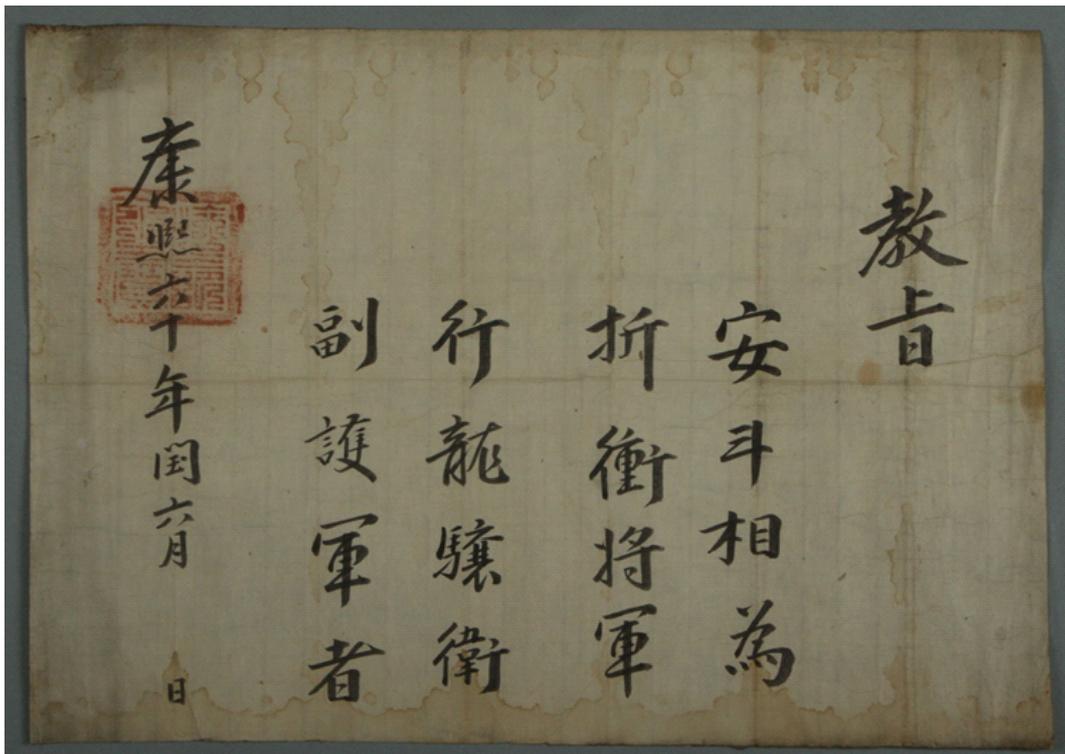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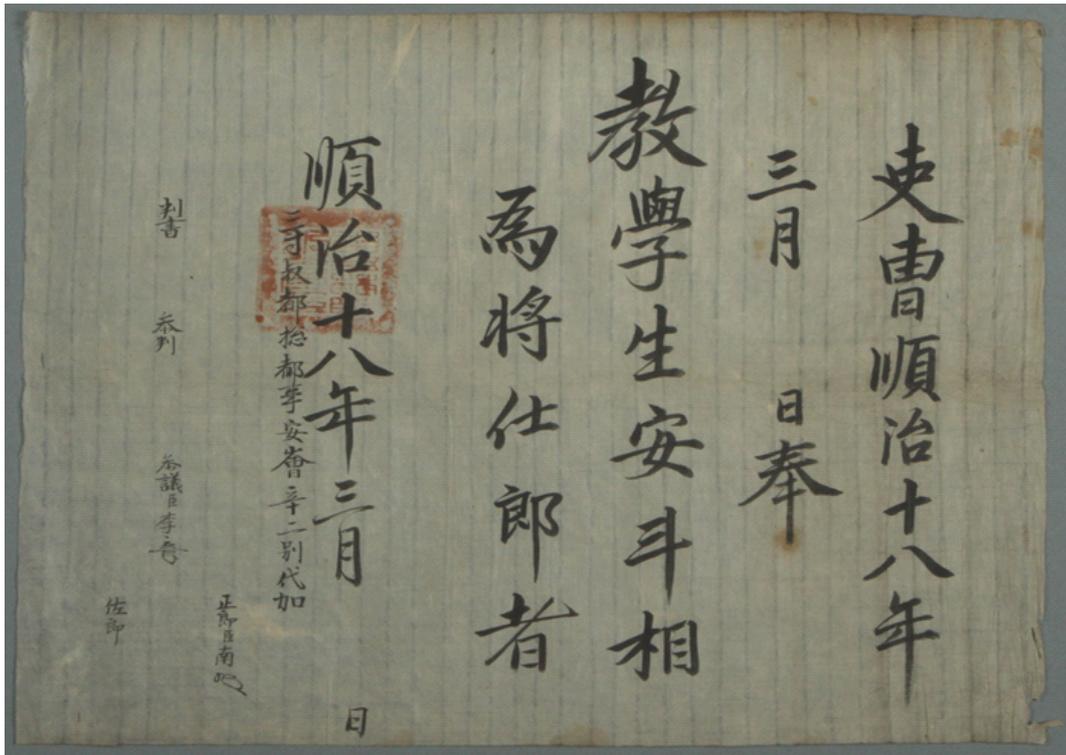
康熙三十年八月初十日



傳封爵
傳社厚從功臣一等通訓大夫前行工曹佐郎安泰考依承

傳封爵

4. 안두상(安斗相, 1636~1723)의 관력과 교령류문서



2023 국학자료
조사·수집 공동학술대회

은봉 종가 소장 고문서의 구성과 가치 - 간찰을 중심으로

장유승(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간찰의 유래
 - III. 간찰의 형식
 - IV. 간찰첩
 - V. 간찰의 활용
-

은봉종가 소장 고문서의 구성과 가치

- 간찰을 중심으로 -

장유승 |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I. 머리말

고문서는 오래된 문서다. 일반적으로 문서는 발급자와 수취자 간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고받은 글을 말한다. 대체로 1945년 이전의 문서를 고문서로 취급한다. 분량에 따라 낱장 고문서와 낱장 고문서를 한데 엮은 성책(成冊) 고문서로 구분할 수 있다.

고문서는 고서에 비해 자료적 가치를 뒤늦게 인정받았다. 고문서는 대체로 고서에 비해 보관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고문서의 수량은 고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어느 집안 문헌을 조사해도 마찬가지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봉 종가에는 고서 41건과 고문서 1,007건이 있다. 역시 고문서의 수량이 압도적이다.

은봉 종가 고서의 구성은 다른 집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느 집안 고서를 조사하건 가장 많은 것은 필사본(손글씨책)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목판본과 금속활자본 고서를 보유했지만, 여전히 필사를 통한 서적 유통이 주류를 이루었다. 필사본 고서 중에 가장 많은 것은 선비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과거시험 관련 문헌이다.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경전 필사본, 시험문제 필사본, 연습문제 따위다. 과거시험 관련 문헌 외에는 집안 어른들의 시문이다. 문집 간행을 위해 필사하여 보관하는 것이다. 정작 목판본이나 활자본 고서는 많지 않다. 기껏해야 선조들의 문집, 족보, 학습서 정도이다. 은봉 종가의 고서 역시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고문서이다. 옛날 사람들은 고문서 중에서도 교지를 중시했다. 교지는 과거 합격증서 또는 관직 임명장이다. 그러나 지금은 자료적 가치가 덜하다. 누가 언제 무슨 관직에 임명되었는지는 다른 문헌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지 외에 중시한 고문서로는 선조의 필적을 들 수 있다. 낱장으로 두면 보관하기 어려우므로 서첩의 형태로 만든다. 대표적인 것이 서간첩이다.

재산 관련 문서도 중요하다. 땅문서, 집문서를 비롯한 거래증명서가 주류를

차지한다. 이밖에 위선 사업 관련 문서도 중요하다. 족보를 편찬하거나 비석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서 등이다. 과거에는 이런 일의 절차를 중시했다. 의견을 주고받고, 합의를 봐서 문서로 남기고, 진행 과정을 문서로 남겼다. 위선 사업은 조선시대에 활발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제강점기에 더욱 활발했다. 안방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후손들의 시도는 일제강점기에도 계속되었으며, 은봉 종가 고문서에는 이와 관련된 것이 많다.

이처럼 고문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분량면에서 가장 많은 것은 단연 간찰이다. 간찰은 편지이다. 별다른 내용이 없는 안부 편지부터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비밀 편지에 이르기까지, 간찰은 옛사람들의 필수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없는 현대사회를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간찰 없는 전통 사회도 생각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은봉종가 고문서 중에서도 간찰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간찰의 유래

간찰은 편지의 옛 이름이다. 편지(便紙), 또는 서신(書信)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근대에 사용된 것이며, 고대에는 서(書)라고 하였다. 서는 기록의 재질에 따라 다양한 이칭이 있다. 비단에 쓴 것을 첩(帖), 대나무에 쓴 것을 ‘간(簡)’, 목판에 쓴 것을 ‘독(牘)’ 또는 ‘찰(札)’, 종이에 쓴 것을 ‘전(箋)’, 붓투를 사용한 것을 ‘함(函)’이라 하였다.

특히 간은 간략하다는 뜻으로, 길이의 단위인 ‘재[尺]’와 더불어 ‘짧다’는 의미가 있다. 재질은 죽간과 목판이 가장 널리 쓰였다. 간찰과 척독(尺牘)이라는 명칭 역시 본래는 종이 대신 석 자 정도 되는 목판의 표면에 옷칠하여 글을 쓴 데서 비롯하였다. 한(漢)나라 이후 종이가 널리 보급되었으나, 이상의 용어들은 재질과 무관하게 편지의 이칭으로 계속 사용되었다. 요컨대 ‘간(簡)’은 종이가 없던 시절에 종이 대신 사용한 대나무 조각, ‘찰(札)’은 글씨를 쓰는 판자를 뜻한다. 두 글자에는 모두 편지라는 뜻이 있다.

간찰은 중국 춘추시대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당시의 간찰은 대부분 공용문서였으며, 개인 간에 소식을 주고받는 수단으로 발전한 것은 한나라 때였다. 이때부터 친지들 간에 오가며 소식을 전하는 글을 간찰이라고 하였다.

본디 사적인 서신은 문집에 실지 않았다. 문집에 실리게 된 것은 구양수(歐陽修), 소식(蘇軾), 황정견(黃庭堅) 등 송나라 문인들에서 비롯되었다. 현전하는 이들의 문집을 보면, 공적인 성격이 강한 서신과 사적인 성격이 강한 서신을 구분하여

편차하였다. 구양수의 문집은 서(書, 권47)와 간독(簡牘, 권144-155)으로 나뉘어 있고, 소식의 문집은 서(書, 권48-49)와 척독(尺牘, 권50-59)으로 구분되었다. 향정견의 문집 역시 서(書, 권5)와 서간(書簡, 권13-20)이 분리되어 있다.

우리나라 간찰의 초창기 모습은 삼국 시대 김후직(金后稷)의 「진평왕에게 올리는 글[上眞平王書]」, 성충(成忠)의 「감옥에서 의자왕에게 올리는 글[獄中上義慈王書]」 및 최치원(崔致遠)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공적 용도의 서신이다. 사적인 서신은 이황(李滉), 기대승(奇大升), 이이(李珣), 성혼(成渾)의 사례처럼 철학 사상을 논하거나 정치, 예론, 문학론을 교환하는 실용적 용도로 쓰였다.

그러다가 17세기 무렵부터 서간문 자체의 문예미를 중시하는 경향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단적인 증거로 문집의 편차에 일반적인 서간문과 척독을 분리하여 실은 사례가 점차 늘어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신흠(申欽)의 『상촌고(象村稿)』, 허균(許筠)의 『성소부부고(惺所覆瓿稿)』, 신익성(申翊聖)의 『낙전당집(樂全堂集)』 등이 초창기 사례이다.

현전하는 간찰은 대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문예미나 문학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간찰이야말로 당시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서 생활사적 사료 가치가 있다. 간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찰이 유통되는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옛날에는 편지 한 통을 보내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 우선 종이가 비싸다. 종이가 아까우니 뒷면에도 쓰고, 여백에도 쓰고, 그래도 쓸 곳이 없으면 행과 행사이의 틈새에도 쓴다. 종이는 비싼데 편지 쓸 곳은 많으니 어쩔 수 없다.

편지를 전달하는 비용도 비싸다. 지금은 몇백 원이면 전국 어느 곳이든 편지를 보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어림도 없다. 역참(驛站)이라든가 파발(擺撥) 같은 전국적 통신망은 국가가 독점하며, 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는 문서는 공문밖에 없다. 사적인 편지는 배달해주지 않는다. 결국 알아서 편지를 보내야 한다. 집안에 데리고 있는 노비에게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지만, 대개는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편지를 전했던 것 같다.

편지가 오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지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다보니 도중에 편지가 멈추거나 분실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돌고돌아 몇 달 뒤에나 도착하는 경우도 흔하다. 마땅한 인편이 없어 다 써놓은 편지를 오랫동안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 사람을 통해 연결되는 사람의 수는 제곱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세 명만 거치면 누구나 연결된다고 한다. 심지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도 여섯 다리만 건너면 서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SNS가 위력을 발휘하는 원리다. 인적 네트워크가 가진 무서운 힘이다.

조선시대에는 대개 한두 명, 많아야 두세 명만 거치면 누구에게나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편지를 주고받는 일은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적 네트워크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던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일이다.

편지 쓸 일은 너무나 많다. 누가 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위로하는 편지를 보낸다. 혼인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하는 편지를 보낸다. 과거에 합격하거나 관직에 임명된 사람에게도 편지를 보내야 한다. 그밖에도 농사 형편을 묻는다거나 편지로 병문안을 대신한다거나, 편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직접 가서 위로하거나 축하해주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시대 아니다. 편지 보내기도 쉽지 않은 시대였지만, 직접 가는 것보다야 훨씬 쉬웠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편지를 쓰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편지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현대사회에서 휴대폰이나 이메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하다. 편지를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인간관계가 점차 끊어진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1대 1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두 다리 건너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관계가 방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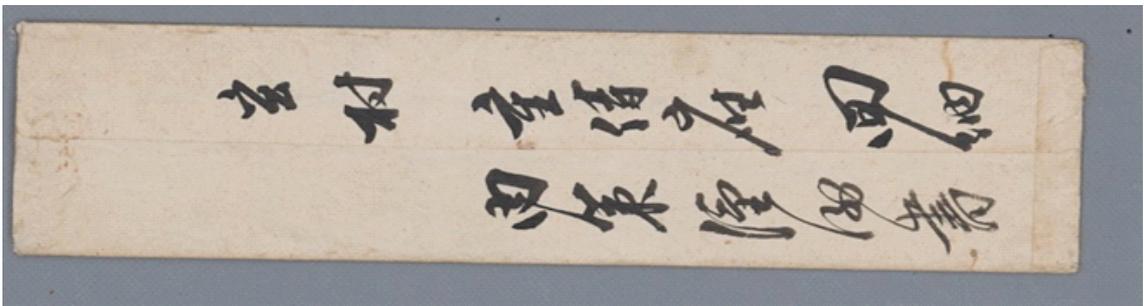
만약 누군가 상호작용을 포기하면 네트워크에 구멍이 생긴다. 구멍을 그대로 두면 네트워크가 와해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그 사람을 배제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결국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 그 신호를 주고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편지이다.

편지의 절반은 인사말이다. 이메일 시대에도 인사말이 없으면 뭔가 어색하다. 공식적인 이메일에서 낮간지러운 계절인사가 빠지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옛날 편지의 인사치레는 장황하기 짝이 없다. 상대는 물론 주위사람까지 두루 걱정해주느라 인사말이 편지의 절반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작 중요한 내용은 끝에 간략히 언급하거나 추신으로 덧붙이는 경우도 많다. 인사말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지금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다. 당시로서는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상대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Ⅲ. 간찰의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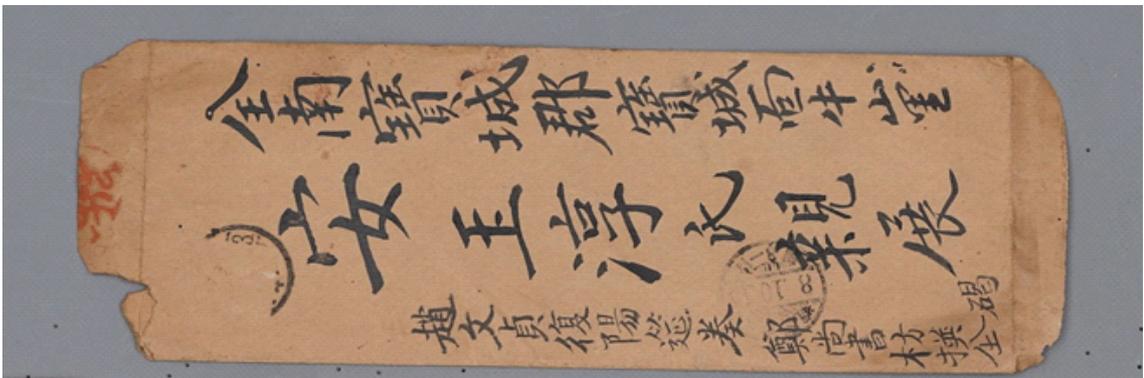
1. 피봉

간찰의 피봉은 지금의 편지봉투에 해당한다. 규격봉투가 있지 않으므로 간찰의 크기에 맞추어 일일이 따로 제작한다. 이 때문에 피봉에 여유가 없는 편이다. 피봉에는 발신자와 수신자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찰 본문에는 수신자가 기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발신자도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피봉은 간찰의 핵심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이다.



【그림1】 전통 피봉

“玄村重侍座會納, 內策謹謝書”라고 되어 있다. ‘玄村重侍座’는 수신자이다. 현촌은 안옥순(安玉淳)의 거주지이자 호이다. 중시좌는 부모를 모두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內策’은 발신자로 홍순채(洪淳彩)이다. 이처럼 피봉에는 발신자와 수신자 정보가 모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뒷면에는 ‘삼가 안부 편지를 올립니다[謹拜候狀]’ 또는 ‘삼가 답장을 올립니다[謹拜謝狀]’ 등의 인사말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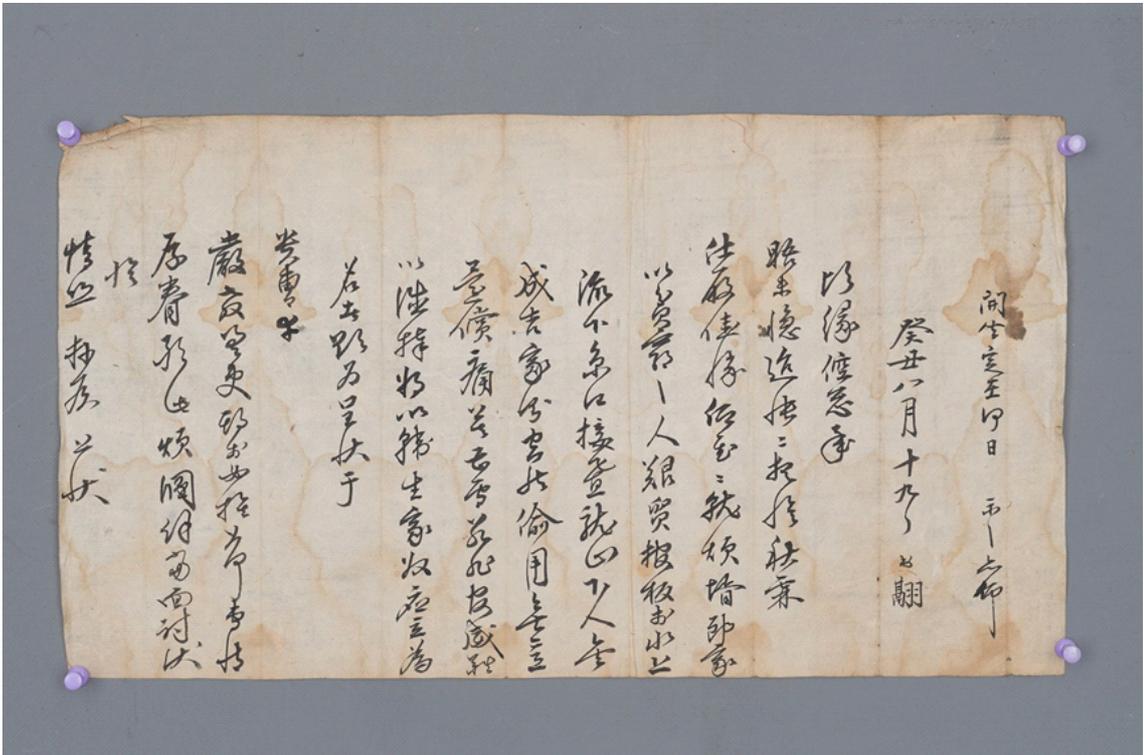
【그림2】 근대 피봉

근대 우편제도가 자리잡은 이후에도 간찰은 여전히 전통적 방식으로 쓰였다. 다만 피봉에서 먼저 변화가 감지된다.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신자의

성명을 밝힌다. 과거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 전하던 방식 대신 우편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생긴 변화다. 우표를 붙이는 것도 이때 생긴 변화다. 우표를 통해 발신 연도를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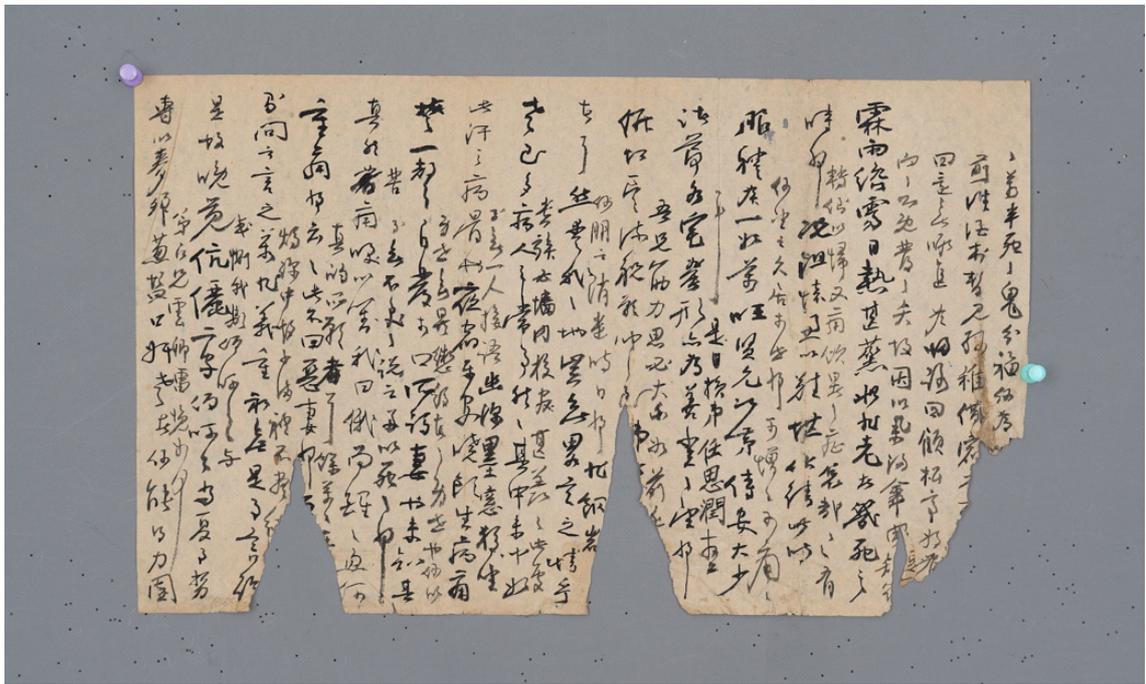
2. 서사방식

원칙적으로 간찰은 종이 한 장의 한 면을 사용한다. 전할 내용이 많으면 여러 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종이가 귀한 시대인만큼 가급적 한 장에 모든 내용을 넣고자 한다. 이로 인해 앞뒷면을 모두 사용하거나, 여백까지 글자를 촘촘히 채워넣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서사방식은 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 존재한다. 중앙 -> 좌상단 여백 -> 우상단 여백 -> 우측 여백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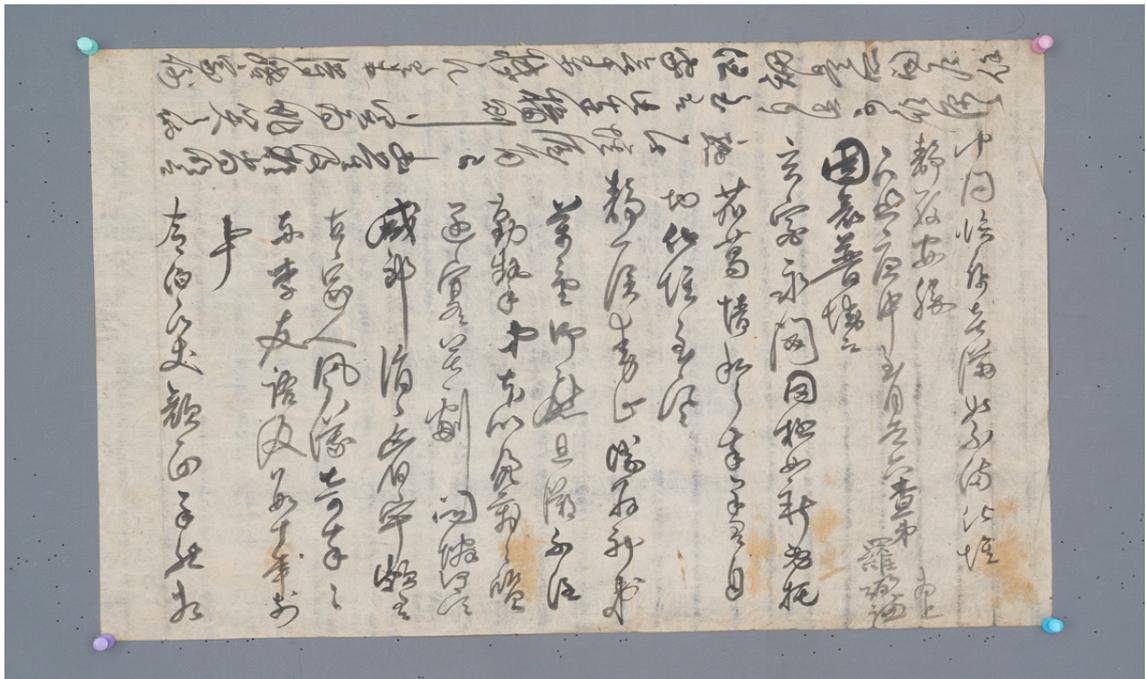
【그림3】 서사방식1

편지 내용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서사방식이다. 가로 약 1/4 지점에서 시작하여 좌측으로 필사하고, 종이 끝에 도달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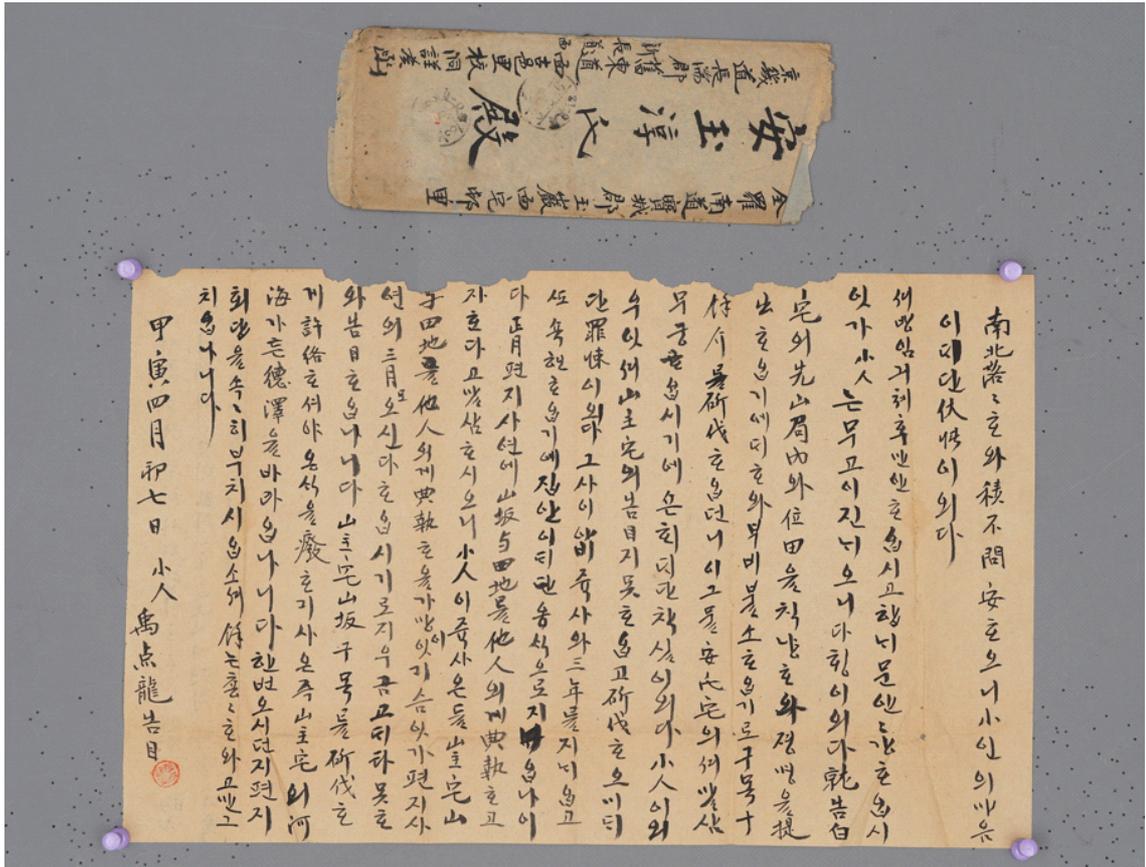
【그림4】 서사방식2

시작 지점은 앞과 같다. 다만 종이 끝에 도달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 앞서 필사한 행과 행 사이에 작은 글씨로 서사를 계속한다. 이 방식으로 필사하면 2장 분량의 간찰을 한 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림5】 서사방식3

역시 시작 지점은 앞과 같다. 다만 종이 끝에 도달하면 종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 여백에 쓰고, 다시 180도 회전시켜 여백에 쓰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여백에 쓴다. 좌상단과 우상단, 우측 여백을 모두 활용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그림6】 한글 편지

한글 편지이다. 언문 간찰, 줄여서 언간(諺簡)이라고 한다. 과거의 문자생활은 한문과 한글을 병용하는 이중언어체계였다. 한문은 남성 사대부의 문자, 한글은 여성과 하층민의 문자였다. 여성은 아무리 한문을 잘 알아도 한글로 편지를 썼다. 이것은 한문을 중시하고 한글을 천시해서가 아니라, 두 언어의 사용 주체가 다르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남성 사대부가 여성에게 편지를 보내는 경우 역시 한글을 사용한다.

IV. 간찰첩

간찰을 보관하기 위해 책의 형태로 만든 것을 간찰첩, 서간첩이라고 한다. 간찰첩의 명칭은 ‘○○尺牘’ ‘○○簡牘’, ‘○○手簡’ 등이다. 모두 편지라는 뜻이다. 간찰첩을 만드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다. 첫째, 후손이 조상의 필적을 간직하기 위해, 또는 제자가 스승의 필적을 간직하기 위해 만드는 경우다. 후손은 조상의 흔적을 간직하려 하기 마련이다. 사진이 없는 시대다. 초상화 역시 아무나 그릴 수 없는 시대다. 반면 필적은 수집과 보관이 수월한 편이다. 조상 한 사람, 또는 여러 조상의 필적을 모아 간찰첩을 만드는 이유가 이것이다. 가장(家藏)으로 유전(遺傳)되는 간찰집은 내용에 관계없이 선조의 필적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중시되었으며, 가승(家乘)으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다만 이 경우 내용적 가치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둘째는 지인에게 받은 간찰을 모아 만드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간찰은 보내고 나면 되찾기 어렵다. 조상이나 스승의 필적을 모아 간찰첩을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다. 반면 받은 간찰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중 교류를 자랑할 만한 유명인사의 간찰을 모아 간찰첩으로 만들어 대대로 전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는 감상용으로 유명인의 간찰을 모아 만드는 경우다. 고위 관료를 역임하거나 명필로 이름난 인물의 간찰을 모아 만든 간찰첩이 여기에 속한다. 친필 필사본이나 친필을 묵각(墨刻)한 간찰첩이다. 다만 이 경우는 가짜가 섞여 있기도 하다. 유명인의 친필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지만, 역시 내용적 가치는 부족한 편이다.

은봉 종가의 간찰첩은 별도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은봉 안방준 종가의 옛 서간집』, 신조사, 2014) 이 책에는 6종의 간찰첩이 수록되어 있다. 『우계선생 서독첩(牛溪先生書牘帖)』, 『제현간독(諸賢簡牘) I』, 『선유왕복(先儒往復)』, 『제현간독(諸賢簡牘) II』, 『내외선조수적(內外先祖手蹟)』, 『간독(簡牘)』이다. 『우계선생 서독첩』은 성훈(成渾)이 안방준(安邦俊)에게 보낸 간찰을 모은 것이다. 다만 이 간찰첩은 실물이 전하지 않는다. 목활자본 『은봉사우간독』에 실려 있는 것을 옮겨 실은 것이다. 간찰의 발신자가 유학자로 명성 높은 성훈이었으므로 별도의 간찰첩으로 엮은 것이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 중 첫 번째에 해당한다.

연번	발신자	수신자	발신일자	종류
1	성훈(成渾)	안방준(安邦俊)	1591.6.27	간찰
2	성훈(成渾)	안방준(安邦俊)	1591.11.19	간찰
3	성훈(成渾)	안방준(安邦俊)	1593.4.29	간찰
4	성훈(成渾)	안방준(安邦俊)	1595.1.20	간찰
5	성훈(成渾)	안방준(安邦俊)	1596.8.16	간찰
6	임성주(任聖周)		1775.9	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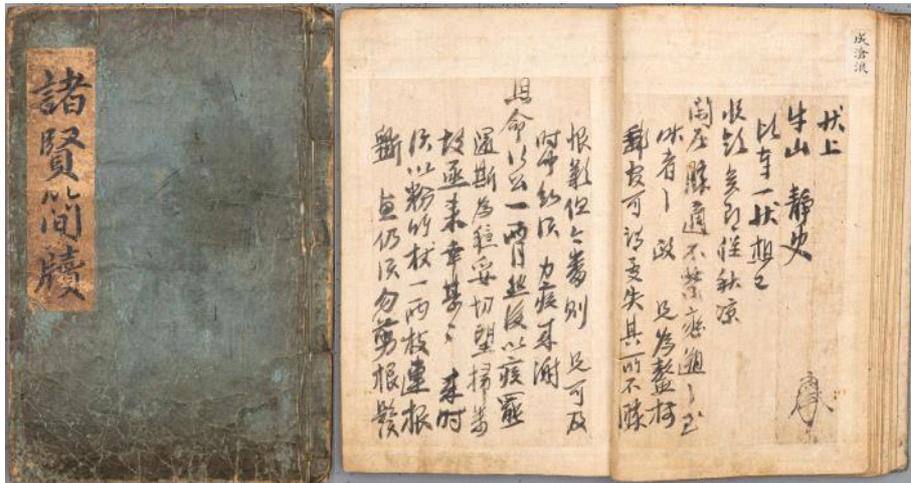
표1 『우계선생서독첩』의 구성과 내용

『제현간독 I』은 김장생(金長生), 이정귀(李廷龜), 오윤겸(吳允謙), 김류(金瑬), 조익(趙翼) 등이 안방준에게 보낸 간찰 39통을 엮은 것이다. 이 간찰들의 발신자는 안방준과 교유한 인물들로서 대체로 유명 인사이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 중 두 번째에 해당한다.

연번	발신자	수신자	발신일자	종류
1	김장생(金長生)	안방준(安邦俊)	1627.1.25	간찰
2	이정귀(李廷龜)	안방준(安邦俊)	1616.7.16	간찰
3	오윤겸(吳允謙)	안방준(安邦俊)	1635.10.12	간찰
4	김류(金瑬)	안방준(安邦俊)	1623.7.17	간찰
5	조익(趙翼)	안방준(安邦俊)	1633.11.5	간찰
6	조익(趙翼)	안방준(安邦俊)	1645.10.21	간찰
7	성문준(成文濬)	안방준(安邦俊)	1625.8.25	간찰
8	송갑조(宋甲祚)	안방준(安邦俊)	1626.6.4	간찰
9	윤황(尹煌)	안방준(安邦俊)	1634.1.10	간찰
10	김집(金集)	안방준(安邦俊)	1650.6.3	간찰
11	민응형(閔應亨)	안방준(安邦俊)	1646.2.24	간찰
12	이시백(李時白)	안방준(安邦俊)	1648.9.18	간찰
13	이시방(李時昉)	안방준(安邦俊)	1648.9.24	간찰
14	신민일(申敏一)	안방준(安邦俊)	1646.9.1	간찰
15	이식(李植)	안방준(安邦俊)	1629.4.1	간찰
16	이식(李植)	안방준(安邦俊)	1644.12.23	간찰
17	정양(鄭漾)	안방준(安邦俊)	1654.2.19	간찰
18	양진룡(梁震龍)	안방준(安邦俊)	1645.1.7	간찰
19	김덕보(金德普)	안방준(安邦俊)	1626.2.3	간찰
20	조완도(趙完堵)	안방준(安邦俊)	1636.11.25	간찰
21	고순후(高循厚)	안방준(安邦俊)	1627.2.7	간찰
22	고순후(高循厚)	안방준(安邦俊)	1636.6.5	간찰
23	고용후(高用厚)	안방준(安邦俊)	1633.10.19	간찰
24	유성증(俞省曾)	안방준(安邦俊)	1640.10.3	간찰
25	유성증(俞省曾)	안방준(安邦俊)	1646.12.28	간찰
26	유백증(俞伯曾)	안방준(安邦俊)	1646.2.17	간찰
27	김광혁(金光燦)	안방준(安邦俊)	1641	간찰
28	유계(俞槩)	안방준(安邦俊)	1648.2.24	간찰
29	윤선거(尹宣舉)	안방준(安邦俊)	1654.9.15	간찰
30	윤문거(尹文舉)	안방준(安邦俊)	1654.9.12	간찰
31	유철(俞徹)	안방준(安邦俊)	1644.10.11	간찰
32	남선(南銑)	안방준(安邦俊)	1643.7.27	간찰
33	유황(俞桴), 유철(俞徹)	안방준(安邦俊)	1650.6.14	간찰
34	윤종지(尹宗之)	안방준(安邦俊)	1653.7.22	간찰

35	이문주(李文柱)	안방준(安邦俊)	1646.8.4	간찰
36	이영구(李英耇)	안방준(安邦俊)	1652.10.23	간찰
37	장중인(張仲仁)	안방준(安邦俊)	1650.1.24	간찰
38	윤영(尹鏐)	안방준(安邦俊)	1653.1.13	간찰
39	주엽(朱曄)	안방준(安邦俊)	1637.2.25	간찰

표2 『제현간독 I』의 구성과 내용



【그림7】 『제현간독 I』 표지와 내용

『선유왕복』은 송시열(宋時烈), 민진원(閔鎭遠), 조익(趙翼), 이민서(李敏敍) 등의 시와 간찰 28편을 엮은 것이다. 이 간찰들의 수신자는 안방준만이 아니다. 안방준의 아들 및 손자에게 보낸 간찰도 있는 것으로 보아, 가문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후손이 엮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연번	발신자	수신자	발신일자	종류
1	미상	안전(安奎)	1684.6.18	간찰
2	유성증(俞省曾)	안방준(安邦俊)	9.27	간찰
3	송연(宋淵)	안방준(安邦俊)		간찰
4	이시방(李時昉)	안방준(安邦俊)	1636.11.23	간찰
5	민진원(閔鎭遠)		1725.6.5	간찰
6	송시열(宋時烈)		1683.4.18	간찰
7	조익(趙翼)	안방준(安邦俊)	1650.2.21	간찰
8	유황(俞樾), 유철(俞勸)	안방준(安邦俊)	1644.1.19	간찰
9	민응형(閔應亨)	안방준(安邦俊)	1645.8.29	간찰
10	조송년(趙松年)	안방준(安邦俊)	1646.4.29	간찰
11	이민서(李敏敍)		1685.11.30	간찰
12	민응형(閔應亨)	안방준(安邦俊)	1646.4.18	간찰

13	신민일(申敏一)	안방준(安邦俊)	1650.1.16	간찰
14	송시열(宋時烈)	안방준(安邦俊)	1651.5.15	간찰
15	미상	안방준(安邦俊)		간찰
16	민응형(閔應亨)	안방준(安邦俊)	1652.10.25	간찰
17	장중인(張仲仁)	안방준(安邦俊)	1650	간찰
18	윤종지(尹宗之)	안방준(安邦俊)	1653.5.21	간찰
19	정양(鄭養)	안방준(安邦俊)	1653.12.17	간찰
20	신열도(申悅道)	안방준(安邦俊)	1653.6.12	간찰
21	조상우(趙相愚)		1682.11.2	간찰
22	장중인(張仲仁)	안방준(安邦俊)	1654.7.7	간찰
23	고경명(高敬命)			시
24	곽제화(郭齊華)	안방준(安邦俊)	1654.7.25	간찰
25	안전(安峯)		1667.5.28	간찰
26	민진장(閔鎭長)		11.27	간찰
27	신치복(辛致復)		1742.1.2	간찰
28	윤진(尹楨)	안전(安峯)	1682.9.8	간찰

표3 『선유왕복』의 구성과 내용



【그림8】 『선유왕복』 표지와 내용

『제현간독Ⅱ』는 이관명(李觀命), 조복양(趙復陽), 이사명(李師命) 등이 보낸 17통의 시와 간찰을 엮은 것이다. 수신자는 안방준의 후손들이다. 『내외선조수적』은 성수침(成守琛), 성문준(成文濬), 안방준 등이 보낸 10통의 시와 간찰을 엮은 것이다. 성수침은 안방준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성훈의 부친으로서 연결된다. 이밖에 안방준과 그 후손들이 집안 사람에게 보낸 간찰이 수록되어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흔재된 유형이라고 하겠다.

연번	발신자	수신자	발신일자	종류
1	이관명(李觀命)			간찰
2	조복양(趙復陽)	안전(安峯)	1670.6.3	간찰
3	이사명(李師命)		1685.12.16	간찰
4	이빈(李彬)	안전(安峯)	8.28	간찰
5	박세채(朴世采)	안음	1682.8.1	간찰
6	신명규(申命圭)	안전(安峯)	1678.5.18	간찰
7	신명규(申命圭)	안두상	1687.12.5	간찰
8	신명규(申命圭)		1683.8.7	간찰
9	신명규(申命圭)			간찰
10	오도일(吳道一)	안전(安峯)	1678.1.5	간찰
11	조정만(趙正萬)		1687.10.16	간찰
12	이민서(李敏弼)		1.2	간찰
13	항(恒)			간찰
14	조상우(趙相愚)		1677.3.4	간찰
15	송준길(宋浚吉)		1669.8.19	간찰
16	성문준(成文濬)			시
17	성문준(成文濬)	안방준(安邦俊)	1614	시

표4 『제현간독Ⅱ』의 구성과 내용



【그림9】 『제현간독Ⅱ』 표지와 내용

『간독』은 김병학(金炳學), 조두순(趙斗淳) 등이 보낸 19통의 간찰을 엮은 것이다. 발신일자는 모두 조선 말기에 해당한다. 1864년 중간본 『은봉전서』를 간행하고 배포한 뒤 받은 감사 편지들이다. 이 역시 가문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로 엮은 간찰첩이다.

V. 간찰의 활용

지금까지의 문헌 연구는 고서 중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학 연구기관들이 확대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고문서이다. 고문서는 낱장을 연구하는 사례가 드물고, 특정 가문 및 지역의 고문서 문치를 연구한다. 이 경우, 특정한 주제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분과학문 체재로는 접근이 어렵다. 여러 분야 연구자의 공동 연구가 필요한만큼, 한국학의 전망에 부합하는 문헌이다.

1982년부터 전국 각지의 고문서를 수집, 정리하여 『고문서집성』을 편찬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가장 많은 자료 및 정리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국학진흥원과 호남한국학진흥원도 고문서 번역에 적극적이다. 고문서 연구는 연구기관과 지자체의 소장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장자료를 우선 연구하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고문서 연구의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고문서 발굴 및 정리 작업은 영남 지역에 편중되어 왔다. 호남 지역 고문서는 부안김씨, 해남윤씨, 남평문씨, 영월신씨, 문화유씨 등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여러 대의 문헌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드문 편이다. 이 점에서 약 3백 년에 걸쳐 생산된 은봉 종가 고문서의 자료적 가치는 크다. 안방준 이후 이 가문에서 중앙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인물이 나오지 않아 고문서의 배경이 지역 사회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한계다. 그러나 이 점에서 은봉 종가 고문서가 호남 지역 향촌 사족의 생활상을 잘 보여줄 수 있다.

필자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소장된 나주 회진 창계 임영 가문 고문서를 정리 중이다. 창계 가문 고문서의 수량은 약 4천 점이며, 임영 전후로 8대 약 3백 년에 걸쳐 생산되었다. 수량이 방대하여 간략 목록 작성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내용 파악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학문적 논의의 진행 과정을 파악하거나 생활사적 자료로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내용 파악 이후에 가능한 작업이다.

따라서 필자가 우선 착수하고 있는 작업은 네트워크 재구이다. 창계 가문 고문서의 대부분은 간찰이며, 수신자와 발신자, 발신일자를 파악 가능한 것도 상당하다. 누대에 걸친 네트워크 재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 회진 일대를 거점으로 삼는 창계 가문의 고문서는 호남 지역 향촌 사족의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은봉 종가 고문서 역시 지역 사회 네트워크 재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은봉 종가 간찰은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작성된 것이 대부분인데, 수신자와 발신자, 발신일자를 토대로 네트워크를 재구한다면 이 시기 은봉 종가 인물들의 활동과 교유범위, 그리고 지역 사회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 국학자료
조사·수집 공동학술대회

종합토론

2023 국학자료
조사·수집 공동학술대회

은봉 안방준

사상과 은봉종가 자료의
학술적 가치

발행일 2023년 9월 15일

발행처  재단
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Tel. 062-603-9600

Fax.062-941-6705

<http://www.hiks.or.kr>

본 책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2023 호남국학 진흥지원 사업(국학자료 조사·수집)”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물이며, 여기에 실린 글과 도판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